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일 양국의 비유표현 연구

- 밥·국·떡의 관용구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李 武 勇

2017年 2月

한·일 양국의 비유표현 연구

- 밥·국·떡의 관용구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李 昌 益

李 武 勇

이 論文을 日語日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2月

李 武 勇의 語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12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2
3 연구대상 및 방법	3
II. 본론	7
1. 한·일 밥, 국, 떡 문화	7
1.1 한국의 문화	8
1.2 일본의 문화	9
2. 한·일 밥, 국, 떡의 이미지	9
2.1 밥	10
2.1.1 한국의 이미지	11
2.1.2 일본의 이미지	16
2.2 국	19
2.2.1 한국의 이미지	20
2.2.2 일본의 이미지	22
2.3 떡	25
2.3.1 한국의 이미지	25
2.3.2 일본의 이미지	31
3. 한·일 밥, 국, 떡의 의미 분류	35
3.1 밥	36
3.1.1 한국의 의미 분류	36
3.1.2 일본의 의미 분류	41
3.2 국	44
3.2.1 한국의 의미 분류	45

3.2.2 일본의 의미 분류	47
3.3 떡	50
3.3.1 한국의 의미 분류	50
3.3.2 일본의 의미 분류	55
4. 한·일 이미지·의미 분류 차이	59
4.1 밥의 분류 차이	59
4.2 국의 분류 차이	61
4.3 떡의 분류 차이	62
Ⅲ. 결론	64
참고문헌	66
부록	68

국문초록

한·일 양국의 비유표현 연구

- 밥·국·떡의 관용구를 중심으로 -

이 무 용

제주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이 창 익)

이 연구는 한·일 양국의 언어 학습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표면적 의미 그대로 해석해서는 의미전달이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관용구와 속담 등의 비유표현임을 연구하였다.

비유표현의 목적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강조하거나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적이고 일상적이라고 하는 생각과는 벗어난 것으로 오랜 세월이 걸쳐 습관처럼 쓰는 말로 돌려 말할 때 쓰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비유표현은 한 나라의 민족이 오랜 세월을 거쳐 문화, 생활, 사고방식 등 사회적 전반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그 나라 민족의 고유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해당 언어의 관용적 비유표현을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습득해야만 원만한 학습과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국의 주식인 밥과 국 그리고 중요한 행사의 차림상의 주요 음식인 떡을 가지고 양국의 관용구에서 그 소재가 비유하고자 하는 표현과 의미는 각각 무엇 인지를 비교·분석하여 지리적으로 가깝고 동일 한자문화권 속에서 양국의 비유표현은 어떠한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지를 조명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한·일 양국의 비유적 표현을 추출하여 총 100개의 비유표현으로 연구대상을 삼았으며 조사대상인 비유표현의 선정은 선행연구 자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최경봉의 『우리말 관용어 사전』, 米川明彦의 『日本語 慣用句 辞典』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류하였다.

양국의 비유표현 내에서의 이미지 차이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이중적 표현으로 분류하였고, 최경봉(2014) 우리말 관용어 사전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의미 분류를 감정 심리, 성격태도, 동작행위, 상태가치, 사회생활로 나누고 이 다섯 가지 의미 분류를 다시 세분화하였다.

이미지 및 의미는 분류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선행연구자의 분류표에 의거하여 연구자의 관점에서 내용에 따라 이미지 및 의미를 분류하여 양국의 밥·국·떡에 대한 이미지와 의미에서 나타나는 비유표현의 비교·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양국은 쌀 중심의 밥을 주식으로 하며 하루 세끼의 식생활을 한다. 밥상의 구성도 비슷하나 식사방법이나 식사에절은 각기 독자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비유표현에서 밥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비율이 높다. 이는 밥이 생명 유지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밥이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수단에서 비롯된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다.

밥의 의미 분류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일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 그리고 국민의 개성에 따라 그 언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양국은 모두 국물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국물의 이미지와 의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음식에는 반드시 국물이 뒤따르는 숟가락 문화라고 한다면 일본은 국을 부식의 개념으로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로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국 문화는 여럿이 나누어 먹음으로서 공동체를 유지되는 힘이 된다는 이미지가 있으나 일본에서의 국은 공동의 음식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며 한국은 국에 밥을 말아먹지만 일본은 말아먹지 않는 문화적 관점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보다는 일본이 국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고 국의 이미지 역시 부정적 비율이 높았다. 비유표현을 통해 고찰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식탁문화의 차를 구분하는 소재가 국이었다.

셋째 떡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밥과 국에 비해 긍정적 이미지의 표현이 많았다. 떡은 어려운 시절에 함께 나누어 먹는 넉넉한 인정의 이미지가 한국에 있고, 일본은 힘이 나는 음식과 초자연적인 힘이 머무는 성스러운 특별한 이미지로 각종 행사와 생활 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음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떡은 양국의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와

제례의 음식으로 사용했는데 한국의 음복(飮福), 일본의 나오라이(なおり)와 같이 제사를 지낸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 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덕을 쌓는 의미의 종교적인 영향에서 비롯되어 부정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것으로도 추정된다.

한국과 일본의 밥, 국, 떡을 중심으로 비유표현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그 표현의 의미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양국의 밥, 국, 떡 중심의 음식문화는 공통성도 있지만 이질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 언어 공동체의 역사와 삶의 환경이 서로 다르게 형성된 문화로 각각 오랜 세월을 거치며 생성된 고유한 언어로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비유표현의 차이는 다소간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해당 언어의 관용적 비유표현을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습득하여야만 원만한 학습과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Study on Figurative Language in Korean and Japanese

- Rice, Soup, Rice Cake Focused -

Lee Moo-yong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Chang-ik

Koreans who study Japanese language and Japanese who study Korean language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when interpreting and delivering messages. This study figures out that figurative language including idiomatic phrases and proverbs can cause the difficulties.

Figurative language is language that uses words or expressions with a meaning that is different from the literal interpretation. Figurative language strengthens or makes a point more compelling and effective. Figurative language reflects culture, lifestyle and way of thinking about a situation of a group of people over long periods of time. Therefore, people need to understand figurative language from a cultural and social standpoint to better acquire second language.

Korea and Japan in close geographic proximity are within the cultural sphere of Chinese character.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Korean and Japanese figurative language that uses rice and soup, main elements of Korean and Japanese cuisine, and rice cake, representative dish for events of the two countries to se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100 figurative expressions are chosen from each language and researched and classified for this study. The expressions are selected from 『Korean Figurative Language Dictionary』written by Choi Gyeong-bong and 『Japanese Figurative Language Dictionary(日本語慣用句 辞典)』written by Yonekawa Akihiko(米川明彦) that preceding researches quote frequently.

The selected figurative expressions are classified by image: positive; negative; neutral; and ambivalent, and classified by meaning: describing emotion; personality and attitude; movement and action; state and value; and daily life and elements of the five categories are regrouped by detailed criteria.

Categorization by image and meaning can vary depending on researchers' point of view. This study classifies figurative expression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preceding researches.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s and Japanese have three meals a day with cooked rice as a staple food. A bowl of rice and side dishes are incorporated in both of the Korean and Japanese tables. But eating culture and table manners are different.

Figurative expressions that include "cooked rice" have more likely negative image. As rice is critical for life and health, many of the figurative expressions are related to family support. This study finds out that meaning of rice related figurative language can vary depending on environment, culture and national characters even if Korea and Japan are within the rice cultural sphere.

Second, both of Korean and Japanese tables incorporate a bowl of soup, but image and meaning of soup are not the same. Koreans eat soup with a spoon while Japanese have it with chopsticks because they consider soup one of the side dishes.

As Koreans share soup with family members, it has image of supporting

communal culture. Soup in Japan is personal food, not communal food. Koreans sometimes put rice in a soup, while Japanese have rice and soup separately. Japanese consider soup less serious and more negative than Koreans. This study finds out that soup distinguishes eating culture of Koreans from that of Japanese.

Third, rice cake more likely has positive image compared with rice and soup. Koreans share rice cake during hard times, so the food represents sympathy in Korea. While, in Japan, rice cake is considered as stamina boosting food and Japanese believe that supernatural energy lies in rice cake. And it is the essential item for various events and daily life, which may contribute to positive image for the food.

It is assumed that rice cake doesn't carry negative image because both of Koreans and Japanese make rice cake for holidays, important events, ancestral rituals and religious rituals. Participants of the rituals share rice cake for blessing themselves, which contribute to sense of unity.

This study divides image and meaning of rice, soup and rice cake containing figurative expressions of Korean and Japanese into five categories. It finds out that food cultures of the two countries hav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even though the countries are geographically close and connected historically.

Each language community experiences different history and environment, which creates its unique culture and figurative languages over long periods of time. Differences in meaning of figurative expressions are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s. This study suggests that second language learners need to understand figurative expressions from the cultural and social perspectives.

I. 서론

1. 연구목적

한·일 양국의 언어 학습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를 처음 습득하면서 쉽다고 느끼는 것은 한자로 의미전달이 가능한 동일 한자문화권이라는 것과 어순이 비슷하다는 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이는 양국의 언어 학습자가 상대방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상황에 맞는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어휘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요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국의 표면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해서는 의미전달이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관용구와 속담¹⁾ 등의 비유표현이다.

관용구란 일반적으로 ‘미역국을 먹다’ ‘강 건너 불구경’ 등 어법적으로 맞지는 않으나 오랜 세월에 걸쳐 습관처럼 쓰는 말로 비유적으로 돌려 말할 때 쓰는 것을 말한다.

속담이란 오랜 기간 동안 경험에 의해 나온 말로 보통 교훈적이거나 진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와 같은 표현을 말한다.

이와 같이 비유표현은 한 나라의 민족이 오랜 세월을 거쳐 문화, 생활, 사고방식 등 사회적 전반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그 나라 민족의 고유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해당 언어의 속담이나 관용적 비유표현을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습득해야만 원만한 학습과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국의 주식인 밥, 국 그리고 제례나 중요한 행사의 차림상의 주요 음식인 떡을 가지고 양국의 비유표현을 고찰하기로 한다.

음식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인 만큼 그 나라의 문화와도 직결된다. 이 연구를 통해 한·일 양국의 비유표현이 주는 이미지(images)와 서로 비슷하면 서로 다른 점이 많은 언어 표현의 차이와 의미상의 특징, 그리고 양국의 표현의 차이

1) 관용구와 속담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 개념과 용어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본질적으로 비유의 기능으로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얻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관용어와 속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속담은 은유의 단계를 거쳐서 전달 의미가 고정되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속담사전에서는 속담과 관용구를 뚜렷이 구별하지 않고 관용구를 실기도 한다.

를 상호 문화적인 시각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주식인 밥, 국과 제례의 주요 음식인 떡에 관한 관용구 및 속담 등의 비유표현의 조사를 통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아울러 조명하려 한다.

2. 선행연구

양국의 관용구에 대한 비유표현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연구의 소재나 분야가 한정적으로 정신(氣)이나 신체분야에 집중되어 있다.²⁾

양국이 지리·환경적으로 가깝고 비슷하여 연구 소재인 음식 관련 관용구 연구가 다양하리라 예상 했지만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한·일 관용구 비교에 관한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이은주(1997)는 각각의 사전에 실려 있는 한·일 양국의 관용구를 바탕으로 17가지 소재의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한 다음, 각각의 관용구에서 그 소재가 비유하고자 하는 표현과 의미는 각각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였다.³⁾

박주연(2000)은 신체관련 관용구를 「頭部」「胴體部」「四肢部」「全體部」로 나누고 전체사전에 수록된 신체관련 관용구가 한국어 814개, 일본어 517개로 총 1331개 정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조영화(2006)는 일본어 관용구에 관한 연구에서 소재별·의미별로 나누어 분석을 하고 있으며⁵⁾, 최선아(2009)는 동물에 관한 관용구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비유표현

2) 「身体語彙慣用句の日・韓対照研究 -頭部の「目」を中心に-」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석사학위 논문 (2005)에서 히라노 아이가(平野愛雅)는 관용표현 연구 중에서 무엇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았는지의 모리타(森田 1965)조사를 인용하여 사람 인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인체에 관한 관용표현은 전체 23.4%에 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 「韓·日兩言語의 比喻表現比較研究 -慣用句를 中心으로-」 國立慶尙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석사학위 논문(1997)에서 ①신체부분 ②생리현상 ③동물·동물의 신체부분 ④식물·식물의 기관 ⑤자연 및 자연현상 ⑥음식·식생활 ⑦의복·의복생활 ⑧집·주거생활 ⑨도구 및 구체적인 물건 ⑩氣, 마음, 생각, 정신 ⑪종교, 신, 귀신 ⑫돈 ⑬물 ⑭꿈 ⑮색깔 ⑯맛, 미각 ⑰기타를 통하여 그 나라의 언어표현, 언어의 논리, 어휘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4) 「韓·日兩國語의 身體語彙關聯慣用句對照研究 - 頭部를 中心으로-」 檀國大學校教育大學院 日本語學專攻 석사학위 논문(2000)에서 한국어는 頭部(51%) 四肢部(20%) 胴體部(19%) 全體部(9%)순이고, 일본어는 頭部(45%) 胴體部(22%) 四肢部(20%) 全體部(13%)순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 결과 신체를 단순한 상태나 활동을 하는 대상으로서 직접 지시하는 것이 지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정신 상태와 활동을 암시하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논술하고 있다.

5) 「일본어 관용구에 관한 연구」 啓明大學校大學院 日本學科 석사학위 논문 (2006)에서 소재별 관용구는 (신체관련 관용구를 종교, 방향, 음식, 중국, 질병, 귀신, 숫자, 직업, 일본고전인물, 계절, 농사, 생사, 금전, 의류) 등 15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하고, 의미별로 본 관용구는 소재별로 분류한 15가지 관용구를 바탕으로 분별력, 관심, 주의, 지적능력, 인간관계, 수단, 고통, 감정, 노력의 중요성, 감탄, 모순,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관용구 등 13개의 관용구로 분류해서 각각의 용례가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⁶⁾

김계연(2012)은 양국의 음료와 주식과 부식관련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음료는 水/물, 茶/차, 酒/술 주식은 飯/밥, 餅/떡, 粥/죽, そば/국수 부식은 어류, 육류, 야채관련 관용표현 중심으로 대조 연구하였다.⁷⁾

이와 같은 선행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소재의 양국의 관용구 또는 비유표현에 대한 비교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이 논문에서는 양국의 밥, 국, 떡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표현된 관용구와 속담을 중심으로 비유표현에 대한 이미지와 의미를 조사·분류하였다. 조사과정 중 양국의 밥, 국, 떡에 대한 비유적 표현들 중에서 밥과 떡은 대등소이하게 발달하였으나 국은 한국이 일본보다 비유표현이 좀 더 발달해 있음을 알았다.

일본은 된장국(みそ汁)이외에 국을 소재로 한 관용구가 많지 않아 국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의 의미범주를 확장시켜 しろ[汁], おつゆ[御汁], お付け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비교·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인 비유표현의 선정은 선행연구 자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최경봉의 『우리말 관용어 사전』, 米川明彦의 『日本語 慣用句 辞典』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류하였다.

그 외에 다른 선행연구 자료와 타 사전, 관련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의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조사 자료

■한국어

-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문금현, 태학사 1999)

6) 「韓·日語의 比喩表現의 比喩研究 -動物 慣用句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학 석사학위 논문(2009)에서 .①포유류 ②조류 ③어패류 ④충류·양서류 ⑤가상 동물류로 총 5종류로 분류하여, 한·일관용구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동물과 한국 관용구에만 등장하는 동물, 그리고 일본 관용구에만 등장하는 동물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서 한·일 양국의 동물 관용구 중 비유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용구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양국의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관용구의 쓰임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7) 「일·한 양국어의 飮·食관련 관용표현 대조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박사학위 논문(2012)에서 일본어는 물, 차, 술, 어류관련 관용표현이 한국어 보다 발달하였으며, 한국어는 밥, 떡, 야채, 죽, 육류관련 관용표현이 일본어 보다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현대국어 관용어 연구』 (김준기·김향숙, 한국문화사 2003)
- 『언어와 사회』 (최기호외 2인, 한국문화사2004)
- 『우리말 관용어 사전』 (최경봉 편저, (주)일조각 2014)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 다음 국어사전 (<http://krdic.daum.net>)

■ 일본어

- 『言語生活』 (筑摩書房 1975)
- 『慣用句の意味と用法』 (宮地裕編, 明治書院, 1988)
- 『國語慣用句大辞典』 (白石大二編, 東京堂出版, 1988)
- 『日本語慣用句辞典』 (米川明彦·大谷伊都子編, 東京堂出版, 2011)
- weblio辞典 (<http://www.weblio.jp>)
- 구글코리아 (<https://www.google.co.kr/>)
- 위키백과 (<https://ja.wikipedia.org/>)

위의 자료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양국의 비유적 표현을 추출하였다.

【표1】한국의 비유표현

밥	국	떡
개밥에 도토리(신세)	가시어미 장 떨어지자 사위가 국 싫다한다	굴러들어 온 떡
그 나물에 그 밥	고기만진 손 국솥에 씻으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국물도 없다	그림의 떡
기름밥을 먹다	김치국부터 마시다	꿀떡 같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꺼져기탕에 개구리 죽는다	남의 떡에 설 쇠다
나랏밥을 먹다	끓는 국에 맛 모른다	남의 떡이 커 보이다
내밥이다	미역국을 먹다	누워서 떡먹기
눈치밥을 먹다	식은 국도 불고 먹는다	두 손의 떡
다된 밥에 재 뿌리다	썩국을 먹다	떡 먹듯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장 없는 놈이 국 즐긴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떡 주고 뺨 맞는다
밥값을 하다		떡 주무르듯 하다
밥그릇(싸움)		떡 해 먹을 세상
밥 먹듯 하다		떡(이)되다
밥벌이 하다		떡값
밥숟가락을 놓다		떡고물
밥술이나 먹다		떡을 치다
밥알이 곤두서다		떡이 생기다
밥을 먹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다
밥을 축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밥이 될지 죽이 될지		봄 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밥이 보약이다		싼 게 비지떡
밥줄을 끊다		아이가진 떡
밥줄이 걸리다		웬 떡이야
밥줄이 끊기다		입에 맞는 떡
연밥을 먹이다		제 떡 먹기라
짬밥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다
찬 밥 더운 밥 안 가리다		찰떡궁합
찬밥신세		
콩밥을 먹다		
한술밥을 먹다		

【표2】일본의 비유표현

飯	汁	餅
朝飯前	灰汁(あく)が抜ける	あんころ餅で尻叩かれる
いつも月夜に米の飯	甘い汁を吸う	絵に描いた餅
同じ釜の飯を食う	てまえみそ	縁の下の力餅
他人の飯を食う	汁を吸っても同罪	魚は殿様に焼かせよ、餅は乞食に焼かせよ
熊野松風は米の飯	馬鹿の三杯汁	画餅に帰す
冷や飯を食う	味噌も糞(くそ)も一緒	木に餅(もち)がなる
無駄飯を食う		棚から牡丹餅(ぼたもち)
飯の食上げ		夏の牡丹餅犬も食わぬ

飯の種		餅代
飯を食ってすぐに寝ると牛になる		餅肌
飯を食う		餅は餅屋
		餅を搗く
		もちを食い酒を飲む
		焼きもちをやく

【표3】양국 비유표현의 총 수

구 분	밥	국	떡	합계
한국어	31	10	28	69
일본어	11	6	14	31
계	42	16	42	100

이상의 비유표현을 대상으로 예문을 통해 비유표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의미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연구 소재인 밥, 국, 떡이 같은 소재이고 비슷한 문화이지만 쓰임새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양국의 밥, 국, 떡 문화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였다. 또한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관용구와 속담을 중심으로 비유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추출하여 표현의 차이와 의미상의 특징을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양국의 비유표현이 나타내는 이미지, 의미 분류를 통해 표현의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비유하고자 하는 표현에서 양국은 동일한 문화권 속에서 밥, 국, 떡 식문화의 차이와 유사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II. 본 론

1. 한·일 밥, 국, 떡 문화

음식은 인류의 생존 수단이자 그 나라의 고유문화이다. 그래서 음식문화는 역사적으로 거듭 발전해 왔다. 동일 문화권이라도 자연적·지리적 환경에 따라 각각 문화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을 통하여 그 나라 국민의 개성과 문화를 일정 부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양국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밥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쌀로 이루어져 있는 쌀 문화권이다. 대체적으로 밥과 국을 중심으로 식단이 구성되는 하루 세끼의 식문화이다.

한국은 삼국시대 이전의 부족국가시대부터, 일본은 야요이시대(弥生時代)부터 쌀을 경작하기 시작하여 밥을 비롯한 떡, 국수 등 다양한 음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떡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떡은 양국의 각종 행사나 제례의 중요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식문화에서 양국은 공통적인 식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는 가까운 지리적 여건상 자연스럽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채택과 변화를 꾀하는 한편, 자연적 풍토와 민족적 특성 차이로 인해 독자적인 음식문화를 발전시켜나갔기 때문이다.⁸⁾

이처럼 음식문화는 그 나라와 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한·일 양국의 밥, 국, 떡을 중심으로 한 비유표현의 이해는 언어의 벽을 뛰어 넘어 문화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양국의 식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 유사점

- 밥을 주식으로 국과 몇 가지 반찬으로 이루어져 있다.
- 숟가락 젓가락을 모두 사용한다.

□ 차이점

- 한국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본은 대체로 젓가락만 사용한다.

8) 김경은『한중일 밥상문화』 이가서 2012 p.6

- 한국은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예의에 벗어나지만, 일본은 밥그릇을 들고 먹는다.
- 한국은 국에 밥을 말아먹지만 일본은 말아먹지 않는다.
- 한국은 수저를 놓을 때 세로로 놓고 일본은 가로로 놓는다.
- 공동의 음식을 덜 때 한국은 개인의 젓가락을 사용하나 일본은 전용 젓가락으로 덜어 먹어야 한다.
- 일본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잘 먹겠다라는 인사를 한다.

상기와 같이 양국은, 동일 문화권 속에서 밥을 주식으로 하는 밥상 구성과 숟가락 젓가락 등의 도구 등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식사 방법이나 식사예절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습관은 특정 공동체의 식생활 양식의 하나로서 식생활문화의 형성과 변천을 거치며 각기 특색 있게 발전시켜온 것이므로 그 지역의 독자성을 일정 부분 엿볼 수 있다.⁹⁾

1.1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에서는 주식과 부식이 뚜렷이 구분된다. 밥을 주식으로, 반찬을 부식으로 한다. 국도 부식의 일종이지만 밥과 국은 소위 말하는 세트메뉴라 볼 수 있다. 밥을 중심으로 국과 여러 가지 반찬으로 한 끼의 식사를 구성한다.

양국은 모두 국물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국물의 의미는 다르다. 한국인의 음식에서의 정식은 밥, 국, 김치와 함께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국물이 뒤따르고, 주식 부식의 개념이 아닌 밥상의 기본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김경은(2012)은 한국은 음식을 먹는 도구로서의 사용 빈도로 보면 주로 숟가락을 사용하는 탕의 문화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국은 반찬의 으뜸으로 치고 정을 나눠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국은 한국의 대표적 식문화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국물 문화가 발전한 이유로는 가난한 생활로 먹을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먹고 넉넉히 먹기 위해 국물요리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¹⁰⁾

어원이 덕(德)에서 나왔다고 하는 떡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쌀을 주식으로 먹는 지역에서 발달하였고, 한국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떡을 해먹기 시작했다. 떡이란 어진 행

9) 박금순 외 9인『세계의 음식문화』 효일 2004 pp.62,71

10) 김경은 전개서 pp.17~226

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베푸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요한 행사시에는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그 떡은 혼자 먹지 않고 반드시 이웃들과 나눠 먹었다¹¹⁾고 한다.

1.2 일본의 문화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생선과 해산물이 풍부하여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 한국과는 달리 주식의 구별이 뚜렷하지는 않다. 따라서 일본인의 식생활은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양국은 손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사용하지만 일본인은 손가락을 사용할 만큼의 국물 문화가 풍부하지 않아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떡은 일본에서도 중요한 행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헤이안시대(平安時代)부터 떡을 해먹기 시작했고, 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餅はもともと正月や祝い事などの「ハレの日」のための特別な食べ物でした。また、節分や桃の節句、端午の節句などの節句ごとに餅が作られ供えられたり、七夕やお盆、お彼岸などの季節の区切りにも食べられます。このように餅は日本人の生活・行事に欠かせない存在として現在まで伝えられています。¹²⁾
(떡은 본래 설날이나 경사 등의 「축제일」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또 입춘이나 삼짇날, 단오절 등의 명절마다 떡을 만들어 올리기도 하고, 칠석, 추석, 오히간(お彼岸) 등의 계절이 바뀔 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떡은 일본인의 생활·행사에 빠질 수 없는 존재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일 음식문화는 먹는 문화로서는 동일하나 도구사용이나 먹는 방법, 유래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비유표현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한·일 밥, 국, 떡의 이미지

이미지란 어떤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직관적 인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인상을 말한다. 어휘표현의 이미지란 어휘자체나 표현내용의 의미에 의해 받거나 떠오르는 느낌을 말하는데 흔히 플러스 이미지, 마이너스 이미지, 중립적

11) 네이버 블로그 삼신할미 이야기 <http://blog.naver.com/2016.09.09>.)

12) (<http://iroha-japan.net> > Home > 食)

이미지로 나눈다. 예를 들면 ‘태양’은 플러스 이미지, ‘죽음’은 마이너스 이미지, ‘바위’는 중립적 이미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경험이나 예문내용에 의해 그 의미는 달라지기도 한다. ‘태양’은 플러스 객관적으로 이미지이지만 ‘태양’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이너스 이미지를 갖는 따위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양국의 밥, 국, 떡의 비유표현에 대한 이미지 차를 일부 예문을 통해 조사·분석하였다. 비유표현 내에서의 이미지 차이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으로 분류하였고, 긍정과 부정표현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비유표현은 이중적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서 밥, 국, 떡에서 사용되는 비유표현이 어떤 이미지로 사용되는 지를 조사하였다.

2.1 밥

양국은 대표적 주식인 ‘밥’을 소재로 하는 비유표현이 발달해 있다. 주식의 개념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공통되는 것은 아니다. 서양에는 빵과 고기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주식인 밥처럼 주식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서양에서 먹는 빵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의 하나이며, 고기와 채소는 반찬이 아니고 함께 식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주식과 부식의 두 가지로 확실히 나누어 생각해 왔고, 밥을 식사 그 자체로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주식은 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상의 식사를 반상(飯床)이라고 하여 아침, 저녁은 밥이 있는 반상의 식사가 보통이다. 반상의 구성은 음식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훌륭한 식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그와 비슷하다.¹³⁾ 한국에는 “밥이 보약”, 일본에는 “식사는 생명의 부모(食は命の親)”라는 말이 있듯이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밥은 생명 유지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고 생계나 직업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적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다.

밥에 대한 비유표현은 한국 31개, 일본 11개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모두 ‘밥’과 ‘飯’이 들어간 비유표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넓은 의미에서 밥을 나타내는 표

13) 한국과 일본의 반상의 식단은 삼첩반상/일즙삼채(一汁三菜), 오첩반상/이즙오채(二汁五菜), 칠첩반상/삼즙칠채(三汁七彩), 구첩반상/삼즙구채(三汁九菜)라는 식으로 수가 많을수록 호화스러운 것으로 3, 5, 7과 같이 홀수를 좋아하는 비슷한 식문화의 환경을 엿볼 수 있다. 石毛直道 동아시아식생활학 회연구회 역, 『세계의 음식문화』, 광문각, 2007 pp.13~40

현인 ‘무위도식하다’ ‘금강산도 식후경’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42개의 용례를 가지고 예문을 통하여 비유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를 통해 긍정, 부정, 중립, 이중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2.1.1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밥에 대한 31개의 비유표현의 이미지와 의미를 예문에 대한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밥에 도토리 (따돌림을 받아서 여럿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
설령 당장은 판사 일색 대법원에서 ‘개밥에 도토리’ 신세라도 그렇게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아침 햇발 ‘개밥에 도토리’라도 좋다 / 여현호)
- (2) 그 나물에 그 밥 (서로 낮은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됨)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지겠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다.
(오마이뉴스 2014. 01. 16)
- (3)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급하게 서두르면 그르칠 수 있다)
거하게 한턱 쏘다고 말했다.(중략) 기다릴게. 원래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하잖아.
(고애경 위풍당당 나승리)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으면 채용하지마라.
(<http://irohas.blog.me/90088432598>)
- (4) 기름밥을 먹다 (기계 등의 전문 직종에서의 큰 경험과 노하우로 직장 생활함)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름밥’만 10년 넘게 먹다보니 현장에서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0. 11. 1)
- (5)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김밥에 대한 편견은 이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되었다.
(중앙일보 2014. 04. 24)
- (6) 나랏밥을 먹다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며 먹는 밥 공무원/ 감옥살이)
 - 중립 ; 물론이지요. 같이 ‘나랏밥’을 먹던 사람의 일인데 그 정도도 못해드릴까요.
(건즈백 커스마스터5)
 - 부정 ; 한번만 더 이딴 짓 해봐! 그대로 ‘나랏밥 먹게’ 될테니까 각오해!
(최경봉 우리말 관용사전 p.452)
- (7) 내 밥이다 (상대방이 만만하다)
“너는 ‘내 밥이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많지 않다.
(단비뉴스 2016. 04. 17)

- (8) 눈칫밥을 먹다 (기를 못 펴고 살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 ‘눈칫밥’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지평선)
- (9) 다 된밥에 재 뿌리다 (심술궂게 망쳐버린다)
 갤럭시 노트7 폭발, ‘다 된 밥에 재 뿌리나’…가전까지 이미지 훼손 우려.
 (CBC 뉴스 2016. 08. 24)
- (10)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존중해야 함)
 하찮은 ‘짐승도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로,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꾸짖거나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선닷컴 2015. 07. 01)
- (11)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기쁜 일이 생겨서 마음이 매우 흡족하다)
 계약금 들어 왔다며? (중략)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아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소형 나를 계약해줘 - 스폰 계약 2)
- (12) 밥값을 하다 (제 역할을 다하다)
 책 두 권 냈으니 이제 부처님께 ‘밥값을 했다’ 이 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면 바로 나를 아는 사람이지.
 (법보신문 밥값을 하다 2016. 05. 16.)
- (13) 밥그릇(싸움) (일자리 다툼)
 대중상 파행 뒤엔 ‘밥그릇 싸움’ 있었다.
 (한국일보 2015. 11. 23.)
- (14) 밥 먹듯 하다 (예사로 좋지 않은 일을 흔히 자주 하다)
 ‘밥 먹듯’ 거짓말을 하는 아이였다. 지금은 고쳤다고 고백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마이데일리 2016. 05. 25)
 아랫것들이 작당해서 주인을 넘보고 주인 재물을 빼앗아 달아나는 짓을 ‘밥 먹듯’이 허는 세상이니, 말세다.
 (박완서, 미망 상편)
- (15) 밥벌이 하다 (일정한 노력을 들여서 먹을 것이나 대가를 얻다)
 가업을 잇는다는 거창한 생각보단 이제껏 해온 ‘밥벌이’니까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조선닷컴 2016. 10. 08)
- (16) 밥순가락을 놓다 (생을 다하다, 그만두다)
 ‘밥순가락을 놓다’라는 말은 완곡하지만 죽음의 본질을 꿰뚫는 비수 같은 표현이기에 밥은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다.
 (아시아 경제 최종수정 2015. 03. 27)
 ‘밥순가락을 놓은’ 분을 무덤까지 모시고 가는 상여를 넣어 두는 곳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후미진 곳에 있다.
 (최경봉 우리말 관용어 사전 p.468)

- (17) 밥술이나 먹다 (형편이 좋아 어지간히 산다)
 이 맥은 겉으로는 양반이지만 알속은 그저 장사하여 **‘밥술이나 먹는’** 집이우.
 (황석영 장길산)
- (18) 밥알이 곤두서다 (아니꼽거나 비위에 거슬리다)
 그 꼴을 보니 은근히 **‘밥알이 곤두섰다.’**
 (네이버 국어사전 <http://naver.com>)
- (19) 밥을 먹다 (어떤 분야에 종사한 경험 또는 생계)
 선생이란 직업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경봉 우리말 관용사전 p.458)
- (20) 밥을 축내다 (일정한 수나 양에서 모자람이 생기게 하다)
‘밥을 축내다’가 변기에 앉을 때, 힘은 그 때 쓰고 되도록 멍해지겠소.
 (백상용 태업의 강도 -울림을 주는 시59)
 친척 집의 할머니는 우리가 **‘밥을 축내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었다.
 (김용성, 도둑 일기)
- (21) 밥이 될지 죽이 될지 (일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불분명함)
‘죽이 될지 밥이 될지도 모르는’ 것에 누가 순순히 돈을 대려고 하겠어?”
 (소다요우 플레이왕국 흥망기3 조민정 옮김)
- (22) 밥이 보약이다(건강에는 밥을 잘 먹는 것이 우선)
‘밥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밥도 종류가 많네요!
 (jjkaha.blog.me/ 2016. 10. 12)
- (23) 밥줄을 끊다 (벌어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없어졌다)
 이영돈 PD에 네티즌들은 이영돈 PD, 남의 **‘밥줄 끊다’**가 본인 밥줄이 끊겼네.
 (조선일보 2015. 03. 26)
- (24) 밥줄이 걸리다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을 얻고 잃는 문제)
 나도 우선 당장 **‘밥줄이 걸리다’**보니 조금은 비겁해졌다.
 (<http://blog.naver.com/didtjrwns123>)
- (25) 밥줄이 끊기다 (해고되다)
 벌거벗고 살게 되는 날이면 주인아줌마도 나도 **‘밥줄이 끊어지고’** 만다는 걸 모
 를 리가 없다.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 (26) 연밥을 먹이다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남을 꼬드기다)
 이놈아, 지난밤에 내게 살곶을 삼시라고 **‘연밥을 먹이고’** 매휴(賣休)한 놈은 바
 로 네놈이 아니었더냐?
 (김주영 객주)
- (27) 짬밥 (군대, 직장, 학교 등에서 조직생활의 연륜)
 삼촌!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장난할 **‘짬밥’**이냐?
 (박경철외 1인 리더스북 p.22)

- (28) 찬 밥 더운 밥 안 가리다 (어려운 형편에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는다)
 지금은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 상황은 국가 위기 국면이다.
 (매일경제 1977. 11. 26)
- (29) 찬밥신세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의 처지)
 돈 못 버니 ‘찬밥 신세’… 퇴직 후 돌변한 가족들
 (조선닷컴2016. 06. 16)
- (30) 콩밥을 먹다 (감옥살이를 하다)
 교도소를 의미하는 ‘콩밥’은 일제 강점기 재소자들이 먹었던 곡식 함유 비율에서 유래됐다.
 (한국일보 2014. 02. 23)
- (31) 한술밥을 먹다 (함께 생활하며 지내는 식구, 동료)
 오랫동안 ‘한 술밥을 먹은’ 식구인양 스탬프들과 이미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스포츠 조선 2016. 06. 02)

상기와 같이 한국의 ‘밥’을 소재로 하는 (1) ~ (31)의 비유표현을 통하여 살펴본 내용으로 이미지 분류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이중적 네 가지로 나누어 분류하면 【표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4】한국의 밥의 이미지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이미지			
		긍정	부정	중립	이중
1	개밥에 도토리(신세)		○		
2	그 나물에 그 밥		○		
3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		
4	기름밥을 먹다	○			
5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		
6	나랏밥을 먹다				○
7	내 밥이다		○		
8	눈칫밥을 먹다		○		
9	다된밥에 재 뿌리다		○		
10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		
11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			
12	밥값을 하다	○			
13	밥그릇(싸움)		○		

14	밥 먹듯 하다		○		
15	밥벌이 하다			○	
16	밥손가락을 놓다			○	
17	밥술이나 먹다	○			
18	밥알이 곤두서다		○		
19	밥을 먹다			○	
20	밥을 축내다		○		
21	밥이 될지 죽이 될지		○		
22	밥이 보약이다	○			
23	밥줄을 끊다		○		
24	밥줄이 걸리다			○	
25	밥줄이 끊기다		○		
26	연밥을 먹이다		○		
27	짬밥	○			
28	찬 밥 더운 밥 안 가리다			○	
29	찬밥신세		○		
30	콩밥을 먹다		○		
31	한술밥을 먹다	○			
합 계		7	18	5	1

상기와 같이 한국의 ‘밥’을 소재로 하는 31개의 예문에 대한 이미지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긍정적 이미지

예문 (4)전문직, (11)흡족함, (12)역할을 함, (17)형편이 좋음, (22)보약, (27)연륜, (31)식구 등의 7개의 요소가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부정적 이미지

예문 (1)따돌림, (2)격이 낮음, (3)급하면 그르침, (5)상황에 맞지 않음, (7)만만함, (8)기가 죽다, (9)망쳐버림, (10)존중해야함, (13)다툼, (14)습관처럼 자주, (18)아니꼬움, (20)양이 모자람, (21)불투명, (23)없어지다, (25)해고되다, (26)꼬드기다, (29)하

참음, (30)감옥살이 등의 18개 요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어 빈도가 높은 걸 알 수 있다.

□ 중립적 이미지

예문 (15)노력의 대가, (16)그만두다·생을 다하다, (19)와(24)는 생계를 잇는 먹고 사는 문제, (28)급한 처지 등의 5개의 요소가 중립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 이중적 이미지

예문 (6)의 경우는 예문처럼 밥은 나랏일을 하는 직업으로서 중립적 요소, 부정적 요소는 죄를 지어 감옥살이 등으로 나라가 주는 밥을 나타내는 이중적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한다.

상기와 같이 한국의 ‘밥’을 소재로 하는 (1) ~ (31)의 비유표현에서는 밥이 주요 인사의 하나로 쓰인다. 오전, 오후를 가리지 않고 보통 “밥 먹었나”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에 흔히 사용했던 표현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는 밥 문제가 해결되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활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지 차이는 【표4】와 같이 부정 > 긍정 > 중립 > 이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생활의 어려움을 주시인 밥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2.1.2 일본의 이미지

일본의 밥에 대한 11개의 비유표현의 이미지와 의미를 예문에 대한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朝飯前 (식전에는 기력이 없어 간단한 일밖에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아주 쉬운 일을 뜻함)

千曳(ちびき)の大岩を転がすなどは‘朝飯前’の仕事である。

(무거운 바위를 움직이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로 간단한 일이다.)

(芥川龍之介 僻見)

(33) いつも月夜に米の飯 14(만만치 않은 생활)

月夜と白いご飯が毎日続けばいいが、なかなかそうはいかないということを‘いつも月夜に米の飯’と言う。

(달밤과 흰밥이 매일 계속되었으면 하지만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いつも月夜に米の飯라 한다.)

(故事・ことわざ辞典)

(34) 同じ釜の飯を食う (한술밥 식구, 동료)

ことに山崎は京都にいた時分には、‘同じ釜の飯を食った’人である。

(특히 야마자키는 교토에 있던 시절에는 한술밥을 먹은 사람이다.)

(中里介山 大菩薩峠 無明の巻)

(35) 他人の飯を食う (부모와 떨어져 남에 집에서 고생함)

‘他人の飯を食う’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これは親もとを離れて、他人の間で苦勞を味わい、社会の経験を積む。

(남의 밥을 먹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 슬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밑에서 고생을 맛보며 사회 경험을 쌓다.)

(Yahoo!知恵袋 2012. 02. 13)

(36) 熊野松風(まつかぜ)は米の飯 (쌀밥과 같이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명곡)

謡曲の‘熊野と松風’の曲は、米の飯と同じようにだれにでも好まれる曲だということ。

(요쿄쿠인 쿠마노 마츠카제의 곡은 쌀밥과 같이 누구라도 좋아하는 곡이라는 것)

(故事ことわざ辞典blog 2014. 05. 16)

(37) 冷や飯を食う (대우를 받지 못하다)

上司にねたまれ、冷や飯を食わされる。

(상사의 시샘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https://kotobank.jp/word/>)

(38) 無駄飯を食う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

祖先の手柄というだけで、何百年‘無駄飯を食う’祿盗人の三百人や五百人

(조상의 공적이라는 것만으로 수백년 놀고먹는 월급 도둑의 삼백명에서 오백명)

(野村胡堂 奇談クラブ〔戦後版〕大名の倅)

(39) 飯の食上げ (수입이 없어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低俗な聴衆を狙う流行歌手などは、近いうちに‘飯の食い上げさ’

(저속한 청중을 노리는 유행 가수 등은 곧 일자리를 잃는다.)

(野村胡堂 音波の殺人)

(40) 飯の種 (생활의 수단으로 수입을 얻는 방법)

そもそも、学問を‘飯の種’にするということは、本来誤った考えでありますけれど、学者だとて人間である以上食わずに生きて居ることは出来ません。

14) 행복한 생활의 기대하지만 좀처럼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쓰임

(원래 학문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것은 본래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학자라고 해도 인간인 이상 먹지 않고 살아 갈 수는 없습니다.)

(小酒井不木 新案探偵法)

(41) 飯を食ってすぐに寝ると牛になる (계으르면 해롭다)

‘食べてからすぐ寝ると牛さんになる’っておかあさんに習いませんでしたか?

(밥을 먹고 바로 자면 소가 된다는 것을 어머니에게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https://matome.naver.jp/odai/2141628377802225301>)

(42) 飯を食う (생계로 삼다)

‘飯を食う’ことが日本でいえば法学士になる一つの要件である。その飯を食わなければ裁判官や弁護士にはなれない。

(밥을 먹는 것이 일본에서 말하자면 법학사가 되는 하나의 요건이다. 그 밥을 먹지 않으면 판사나 변호사가 될 수 없다.)

(末弘巖太郎 小知恵にとらわれた現代の法律学)

상기와 같이 일본의 ‘밥’을 소재로 하는 (32) ~ (42)의 비유표현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이중적 네 가지의 이미지분류를 나누어 보면 【표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5】일본의 밥 이미지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이미지			
		긍정	부정	중립	이중
32	朝飯前	○			
33	いつも月夜に米の飯		○		
34	同じ釜の飯を食う	○			
35	他人の飯を食う		○		
36	熊野松風は米の飯	○			
37	冷や飯を食う		○		
38	無駄飯を食う		○		
39	飯の食上げ		○		
40	飯の種			○	
41	飯を食ってすぐに寝ると牛になる		○		
42	飯を食う			○	
합 계		3	6	2	0

상기와 같이 일본의 ‘밥’을 소재로 하는 11개의 예문에 대한 이미지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긍정적 이미지

예문 (32) 손쉬운 일, (34)식구나 동료, (36)은 누구나 좋아하는 대상 등이 요소가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부정적 이미지

예문 (33)만만치 않은 생활, (35)객지에서 고생, (37)대우를 받지 못함, (38)무익함, (39)실직, (41) 나태함 등의 6개 요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 중립적 이미지

예문 (40)생활의 수단, (42)생계를 잇다 등의 2개 요소들은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지만 중립적인 이미지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일본국의 ‘밥’을 소재로 하는 (32) ~ (42)의 비유표현에서는 식사는 생명의 부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밥은 직업과 생계를 잇기 위한 수단과 방법 등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생명 유지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지 차이는 【표5】처럼 부정 > 긍정 > 중립 > 이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생활의 어려움을 주식인 밥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비유표현처럼 밥을 통해 생계의 수단 등을 찾고 걱정하는 모양새로 표현하는 것이 많아 부정적 이미지의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2 국

양국은 모두 국물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국물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음식에는 반드시 국물이 따르고, 주·부식의 개념이 아닌 밥상의 기본 개념으로 인식되어지는 숟가락 문화로, 소위 탕의 문화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식단구성에서 일즙삼채(一汁三菜), 이즙오채(二汁五菜) 등과 같은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국(탕)에 대한 중요도를 엿볼 수 있지만 일본인은 젓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국 문화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국에 대한 비유표현은 한국 10개 일본 6개 등 총 16개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소재의 유사성은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 양국은 국에 대한 유사표현이 없었고, 국의 용례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2.2.1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국에 대한 10개의 비유표현의 이미지와 의미를 예문에 대한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 가시어미 장 떨어지자 사위가 국 싫다한다¹⁵⁾ (배려)

무슨 일이 썩 잘 들어맞는 걸 두고 ‘가시어미 장 떨어지자 사위가 국 싫다 한다’고 이르는 속담이 아직 있기는 있다.

(제민일보 2000. 07. 27)

(44) 고기만진 손 국술에 씻으랴¹⁶⁾ (인색함)

‘고기 만진 손이라도 국물을 내기 위해 술에 씻는다’는 말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가엾게 생각해 쓰기도 하고, 인색한 사람을 나무랄 때 사용하기도 한다.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 2010. 05. 20)

(45) 국물도 없다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통일부 장관은 초청 강연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뉴스 2014. 03. 05)

(46) 김치국부터 마시다 (미리 짐작만으로 믿고 행동하다)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의 김치국은 김치를 넣고 끓인 국이 아니라 나박김치의 국물인 것이다.

(조선닷컴 2013. 05. 30)

(47) 껍저기탕에 개구리 죽는다 ¹⁷⁾(까닭 없이 희생되다)

속담에 ‘껍저기탕에 개구리 죽는다’라는 게 있다. (중략) 뜻밖에 당하는 재앙이 나 사나운 운수가 닥쳤을 때를 말한다.

(한국무역신문사 이승열 칼럼 / ‘양급지어’의 아픔 겪는 국적 항공사)

(48) 끓는 국에 맛 모른다¹⁸⁾ (영문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

‘끓는 국에 맛 모른다’ 하였으니 급하게 서두르면 분별력이 흐트러지므로 함부로 행동하게 되느니라.

(신문석〈2012〉 선조의 가르침 해성이엔피)

(49) 미역국을 먹다 (낙방하다)

미끈미끈한 점액질 때문에 미끄러지다 또는 떨어지다는 말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미역국(을) 먹다’는 말은 시험에 미끄러져 낙방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뜻으로 쓰인다.

(문화일보 2012. 11. 06)

15) 장이 떨어져서 국을 끓일 수 없게 되었는데 마침 장모의 처지를 생각한 사위가 일부러 국은 싫어서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로 쓰임

16) 너무나 인색한 나머지 손에 묻은 고기비린내조차 아까워서 그 손을 국술에 씻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쓰임

17) 민물고기인 껍저기로 국을 끓이려고 잡는데 개구리도 덩달아 잡혀 들어와 죽는다는 의미

18) 급한 경우를 당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

(50) 식은 국도 불고 먹는다 (조심을 하다)

뜨거운 국에 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식은 국도 불면서 먹는다’는 뜻으로 한 번 놀란 후에는 조심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소년한국일보 오늘의 속담 2010. 10. 28)

(51) 썩국을 먹다 (어떤 일에 크게 실패하여 골탕을 먹다)

며느리가 해산을 했는데 야속한 시어미가 미역국을 안 끓여 주고 ‘썩국만 끓여 주었다.’

(네이버 국어사전 채만식 썩국새)

(52) 장 없는 놈이 국 즐긴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사치를 즐긴다)

자기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일삼는 사람에게는 ‘장 없는 놈이 국 즐긴다’고 나무랐다.

(경향신문 2006. 10. 19)

상기와 같이 한국의 ‘국’을 소재로 하는 (43) ~ (52)의 비유표현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이중적 네 가지의 이미지분류를 나누어 보면 【표6】과 같다.

【표6】 한국의 국의 이미지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이미지			
		긍정	부정	중립	이중
43	가시어미 장 떨어지자 사위가 국 싫다한다	○			
44	고기만진 손 국솥에 씻으라		○		
45	국물도 없다		○		
46	김칫국부터 마시다		○		
47	꺼저기탕에 개구리 죽는다		○		
48	끓는 국에 맛 모른다		○		
49	미역국을 먹다		○		
50	식은 국도 불고 먹는다			○	
51	썩국을 먹다		○		
52	장 없는 놈이 국 즐긴다		○		
합 계		1	8	1	0

한국의 ‘국’을 소재로 하는 10개의 예문에 대한 이미지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긍정적 이미지

예문 (43)은 장이 떨어져서 국을 끓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안할까 봐서 일부러 국은 싫어서 먹지 않겠다고 하는 배려의 긍정적 이미지로 쓰임.

□ 부정적 이미지

예문 (44)인색함, (45)무익함, (46)조급한 판단, (47)희생, (48)선부른 행동, (49)낙방하다, (51)골탕, (52)분수에 맞지 않은 사치 등의 8개 요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 중립적 이미지

예문 (50)은 한 번 놀란 후에는 조심을 하게 됨을 이르는 뜻으로 중립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한국의 ‘국’을 소재로 하는 (43) ~ (52)의 비유표현에서는 부정 > 긍정 > 중립의 이미지 순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부정적 이미지의 표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탕의 문화로 국을 반찬의 으뜸으로 치고 정을 나눠 먹는 음식으로서 동질감이 나 배려의 의미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표현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표현되는 이유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 많아서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2.2 일본의 이미지

일본의 국에 대한 6개의 비유표현의 이미지와 의미를 예문에 대한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3) 灰汁(あく)が抜ける (세련되다)

あの人も社会人になってからは、組織に揉まれて‘灰汁がぬけてきた.’

(저 사람도 사회인이 되고나서는 조직에 부딪히며 세련되어졌다.)

(<http://matigaisit.exblog.jp/19511598>)

(54) 甘い汁を吸う (이익을 챙기다)

呉服屋も、その甘い汁を吸っている者の一人である。

(포목점도 자신은 고생하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한사람이다.)

(黒島傳治 窃む女)

(55) てまえみそ (겸손하게 자랑하다/자만하다)

- 긍정 : スピーチや講演等で、少し恐縮しながら自分の事を評価したり、自慢のような感じの発言をする場合などに「これは手前味噌ですが」, 手前味噌ながら」, 手前味噌ではありますが」などといった形で使われることが多いです。

(연설이나 강연 등에서 좀 황송하면서 자신의 일을 평가하거나 자랑 같은 느낌의 발언을 하는 경우 등에 "이는 자화자찬 이지만" "자화자찬 하면서" "자화자찬 이긴 하지만" 등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日本語俗語辞書 <http://zokugo-dict.com>)

- 부정 : 先生のような大家なら、なんでも自由にお作りになれるだろうと存じておりましたが、いや、天 二物(にぶつ)を …これはとんだ 手前味噌(てまえみそ)になりました。
(선생님처럼 대가라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하늘은 두 가지를… 이것은 대단한 자화자찬이 되었습니다.)

(芥川龍之介 戯作三昧)

(56) 汁を吸っても同罪 (국을 조금만 맛봐도 내용물을 먹은 것과 같다는 의미로 연류된 죄)

少なくともその時は美味しい汁を吸ったのですから同罪であり、決して被害者ではありません。

(적어도 그때는 맛있는 국을 먹었기 때문에 같은 죄이고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http://blogos.com/article/154071>)

(57) 馬鹿の三杯汁 (몇 번이고 국을 리필을 요구하는 것을 비웃음. 팔불출)

私の子供の頃は味噌汁のお替りを2度すると、馬鹿の三杯汁って言うんだよと言われたものである。何でそんな言葉が出来たのか私は知らない。

(제가 어렸을 때 된장 국 리필을 2번 하면 馬鹿の三杯汁って라고 말하였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난 모르겠다.)

(<http://ameblo.jp/asa1021bun/entry>)

(58) 味噌も糞(くそ)も一緒 (선악을 구분 않고 똑같이 취급하다)

味噌も糞(くそ)も一緒 清いものも汚れたものも同じに扱うこと。また、善悪・優劣の区別をしないこと。めちゃくちゃであること。

(된장도 똥도 같다 맑은 것도 더러워진 것도 같게 취급하는 것. 또 선악, 우열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 뒤죽박죽인 것)

(Yahoo!知恵袋 2010. 09. 29)

상기와 같이 일본의 '국'을 소재로 하는 (53) ~ (58)의 비유표현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이중적 네 가지의 이미지분류를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7】과 같다.

【표7】 일본의 국의 이미지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이미지			
		긍정	부정	중립	이중
53	灰汁(あく)が抜ける	○			
54	甘い汁を吸う		○		
55	てまえみそ				○
56	汁を吸っても同罪		○		
57	馬鹿の三杯汁		○		
58	味噌も糞(くそ)も一緒		○		
합 계		1	4	0	1

일본의 ‘국’을 소재로 하는 6개의 예문에 대한 이미지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긍정적 이미지

예문 (53)처럼 灰汁(잿물, 세련되지 않은 느낌)와 같은 부정적 어휘가 비유표현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정적 이미지

예문 (54)타인을 이용, (56)연류 되다, (57)예의에 벗어난 행동, (58)동일시 취급당함 등의 4개 이미지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중적 이미지

예문 (55)의 てまえみそ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자랑하는 경우의 긍정과 상대방에게는 자만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의미의 부정을 나타내는 이중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일본의 ‘국’을 소재로 하는 (53) ~ (58)예문에서는 부정 > 긍정 > 이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 원인은 일본의 국은 건더기 위주의 개념으로 국물은 가난한 생활로 비추어지는 인식과 자만, 체면 등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 부정적 이미지의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떡

언제부터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일본은 헤이안시대(平安時代) 부터 떡 음식이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떡의 재료는 양국 모두 다양한 곡류를 사용 하지만 주재료는 쌀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쌀의 생산량은 먹고 살기도 힘든 수준이라 잔칫상 혹은 형편이 되는 집 정도가 아니면 보기 힘든 음식 이었다.

떡은 양국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정월 초하루에는 흰떡을 만들어 떡국을 끓여먹고 계절마다 떡을 하여 이웃과 나누어 먹는 세시 풍습이 있다. 생일, 혼례, 제례 등에도 빼놓지 않는 것으로, 신성하고 편안함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평안함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풍습인 것이다.

일본 역시 신전에 올리는 음식으로 떡을 사용하고 각종 축제 등에 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어 이와 관련한 비유표현이 발달했다. 떡은 일본인의 생활·행사에 빠뜨릴 수 없는 존재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상고시대의 한국음식은 일본에도 그대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정창원문서"에는 떡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떡의 모양새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기름에 지지는 떡(이리모치히)'라는 전병에 관한 기록¹⁹⁾이 있어 양국은 쌀을 중심으로 하는 떡에 대한 역사나 문화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비유표현의 차와 의미 분류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떡에 대한 비유표현은 한국이 28개, 일본은 14개가 있다.

2.3.1 한국의 이미지

한국의 떡에 대한 28개의 비유표현의 이미지와 의미를 예문에 대한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9) 굴러들어 온 떡 (형재)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무작정 탄 박명수는 '굴러 들어온 떡'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한국일보 2011. 11. 20)

(60)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형편에 따라 행동함)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란 속담도 재미있다. 무당이 굶을 끝내고 구경꾼에게 나눠 주는 떡이 계면떡인데,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이익이나 얻으라는 얘기다.

(동아닷컴-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2016. 08. 09)

19)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 (61) 그림의 떡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
 양봉농가 가축재해보험 ‘그림의 떡’…꿀벌 피해 속수무책
 -자연재해만 보상, 보험가입 농가 극소수…꿀벌 생태계 가치 외면-
 (연합뉴스 2016. 10. 19)
- (62) 꿀떡 같다 (생각이 간절하다)
 아침을 굶었더니 점심시간이 아직 멀었는데도 밥 생각이 ‘꿀떡 같다.’
 (http://blog.naver.com/ 2015. 05. 23)
- (63) 남의 떡에 설 쇠다 (남의 덕에 이익을 보다)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남의 떡에 설 쇠다’는 설날 속담처럼 조금씩 양보
 해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설날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이투데이 -설은 질어야 좋다!- 2016. 02. 02)
- (64) 남의 떡이 커 보이다 (욕심)
 그는 믿음이 강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성격이 아니라 처음 만나 인연을 같
 이 했던 사람과 오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서울 2016. 10. 24)
- (65) 누워서 떡먹기 (매우 쉬운 것)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들은 재밌는 방송을 선보이
 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동상이몽 http://www.tvreport.co.kr/ 2016.03.08.)
- (66) 양손의 떡 (경우의 수를 가지고 좋은 것으로 선택함)
 위원장은 ‘양 손에 떡’두 개 들고 뭘 먹을까 고민.
 (스페셜경제 2016. 08. 16)
- (67) 떡 먹듯 (예사로 쉽게)
 생각해 보시오 태평양을 건너서 양행하는 일이 ‘떡 먹듯 할 수 있는’ 일이겠소?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3부2권)
- (68)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다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의 무분별한 추경 편성 움직임은 견제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the300, -무분별한 추경 편성은 경계- 2016. 6. 20)
- (69) 떡 주고 뺨 맞는다 (좋은 일을 해 주고 도리어 화를 입게 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수학여행 대상 1번지였던 경주(중략) “중국의 미
 니어처를 보는 것 같다”는 말에 ‘떡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나?
 (sib news.com 2016. 6. 20)

(70) 떡 주무르듯 하다 (마음대로 다룸)

‘떡 주무르듯 하다’에서의 떡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대전일보 떡 이야기 2006. 12. 12)

(71) 떡 해 먹을 세상 (떡을 하여 고사를 지내야 할 정도의 뒤숭숭하고 궂은일)

요즘은 참으로 ‘떡 해 먹을 세상’이다. 뒤숭숭하고 궂은 일이 잦아 삶이 불안해서 그렇다. 무질서가 판친다. 법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

(중부매일 2016. 04. 01)

(72) 떡(이) 되다 (크게 곤욕을 당하거나 매를 많이 맞다)

어제도 담배의 유혹을 이기고자 술을 마셨고 결국은 술이 ‘떡이 되었지’

(<http://blog.naver.com/herry> 2004. 03. 26)

(73) 떡값 (뇌물이나 촌지로 쓰일 때는 부정적 이미지, 수고비나 상여금의 뜻으로 쓰일 때는 긍정적 이미지로 쓰인다)

• 긍정 : 이번 설에는 ‘떡값’이 얼마나 될까?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

• 부정 : 2008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대출 관련 청탁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행장이 받은 명절 ‘떡값’이 실질적으로 뇌물성 자금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했다.

(연합뉴스 2016. 09. 23)

(74) 떡고물 (부정하게 얻는 금품)

‘떡고물’을 줄여서 필요한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2008. 02. 15)

(75) 떡을 치다 (양이나 정도가 충분함은 긍정적 이미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속된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 긍정 : 그 집은 술값이 싸서 세 명이 만원이면 ‘떡을 친다.’

(<http://krdic.naver.com/detail.nhn>)

• 부정 : 한바탕 ‘떡을 치고’나온 흥수는 다리를 휘청거리며 우물가로 갔다.

(최경봉 우리말 관용사전 p.448)

(76) 떡이 생기다 (뜻밖의 이익이 생기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다.

(중앙SUNDAY -어른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는데- 2015. 12. 06)

(77)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다 (미리 손을 써서 문제를 해결함)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부모는 ‘미운 자식일수록 떡 하나 더 주게 된다’고 말한다.

(매일경제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2016. 04. 09)

(78)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잘 꾸미는 것도 필요)
맛은 장담할 수 없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다. 외형을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T동아 2016. 10. 21)

(79) 봄 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²⁰⁾ (봄에는 누구나 굳것질을 좋아함)
우리말로 보릿고개라고도 한다. ‘봄 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봄 사돈은 꿈에 보아도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동아일보 -春窮期- 2000. 05. 02)

(80) 짠 게 비지떡 (생각보다 나쁨)
‘짠 게 비지떡?’...저렴한 경유 알고 보니 가짜.

(MBN 뉴스 2016. 10. 18)

(81) 어린아이가진 떡 (쉬운 상대)
‘어린아이 가진 떡도 뺏어 먹는다’것은 어린아이가 가진 떡까지 빼앗아 먹는
염치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asdic1>)

(82) 웬 떡이야 (뜻밖의 행운이나 횡재)
뜻밖의 행운이나 횡재를 만났을 때 이르는 말. 국밥 시키면 수육 공짜, 이게
‘웬 떡이야.’

(오마이뉴스 2016. 08. 26)

(83) 입에 맞는 떡 (마음에 꼭 드는 일)
살면서 늘 ‘입에 맞는 떡’만 먹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
것도 아니면 최악 대신 차악의 선택이 있다.

(news1 2016. 04. 11)

(84) 제 떡 먹기라 (원래 자기 몫)
이 취업난 시대에 남 줄 게 어디 있냐며 이 소나기 지나고 나면 다시 ‘제 떡
제 먹기’할 궁리에 골몰할 것임을!

(경북도민일보 2016. 07. 08)

(85) 주는 떡도 못 받아 먹는다 (기회 상실)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군’ 쌍방울 1회말 무사 1루 그때 해태 김상진의 투수보
크, 투구동작을 취하다 갑자기 와인드업 모션을 풀어 곧바로 보크가 선언됐다.

(경향신문 1996. 09. 06)

20) 먹을 것이 궁한 봄철에 해는 길고 출출하니 점심만 빼고 들어앉은 샌님도 떡을 먹고 싶어 한다는 의미(출전: 네이버 국어사전)

(86) 찰떡궁합 (완벽한 조합)

된장과 초콜릿은 ‘찰떡궁합’입니다.

(조선닷컴 2016. 05. 11)

상기와 같이 한국의 ‘떡’을 소재로 하는 (59) ~ (83)예문의 비유표현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이중적 네 가지의 이미지분류를 나누어 보면 【표8】과 같다.

【표8】한국의 떡 이미지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이미지			
		긍정	부정	중립	이중
59	굴러들어 온 떡	○			
60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	
61	그림의 떡		○		
62	꿀떡 같다			○	
63	남의 떡에 설 쇠다	○			
64	남의 떡이 커 보이다		○		
65	누워서 떡먹기	○			
66	양손의 떡	○			
67	떡 먹듯	○			
68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다			○	
69	떡 주고 뽀 맞는다		○		
70	떡 주무르듯 하다			○	
71	떡 해 먹을 세상		○		
72	떡(이)되다		○		
73	떡값				○
74	떡고물		○		
75	떡을 치다				○
76	떡이 생기다	○			
77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다			○	
78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79	봄 떡은 들어앉은 산님도 먹는다	○			
80	싼 게 비지떡		○		

81	아이가진 떡		○		
82	웬 떡이야	○			
83	입에 맞는 떡			○	
84	제 떡 먹기라		○		
85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다		○		
86	찰떡궁합	○			
합 계		10	10	6	2

한국의 ‘떡’을 소재로 하는 28개의 예문에 대한 이미지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긍정적 이미지

예문 (59), (63), (76), (82)의 4개의 요소는 행운과 황재를 표현하고 있으며 (65)아주 간단함, (66)행복한 고민, (67)손쉽게, (78)겉모양도 중요, (79)생리적 욕구, (86)이상적인 조합 등의 10개의 이미지로 나타나듯이 떡은 일상의 음식이 아닌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으로서 긍정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 부정적 이미지

예문 (61) 불가능, (64)불만족, (69)선을 행하고 도리어 화를 당함, (71)어수선했음, (72)곤욕을 당하다, (74)부정하게 얻는 금품, (80)싼 것은 싼값을 함, (81)만만한 상대, (84)제 몫, (85)기회상실의 10개 요소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 중립적 이미지

예문 (60)처신에 대한 입장, (62)간절한 생각, (68)우연한 기회, (70)마음대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상황, (77)문제의 해결, (83)선호 등의 6개 요소가 중립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 이중적 이미지

예문 (73)의 뇌물과 수고비, (75)의 충분한 정도와 속된 표현으로서 남녀관계를 표현하는 이중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한국의 ‘떡’을 소재로 하는 (59) ~ (86)예문에서 보듯이 부정 > 긍정 > 중립 > 이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떡’은 다른 소재와는 달리 긍정적인 표현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요인은 떡을 해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의 여유, 행운 운수, 등의 의미와 각종 행사나 제례 등의 떡을 만들어 먹는 베푸는 긍정적 문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2.3.2 일본의 떡 이미지

일본의 떡에 대한 14개의 비유표현의 이미지와 의미를 예문에 대한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7) あんころ餅²¹⁾で尻(しり)叩(たた)かれる (생각지 않은 행운의 뜻으로 같은 의미로 牡丹餅で腰打たれる와 牡丹餅で頬(た)を叩かれる가 있다)

‘あんころ餅で尻叩かれる’ようとは、思いがけない幸せにあう事で、おはぎか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が中身が餅なので別物のようです。

(あんころ餅で尻叩かれる는 뜻밖의 행운이 있는 것으로 오하기(おはぎ)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속이 떡이라 다른 것 같다.)

(<http://zaitaku633933.blog.fc2.com> 2016.01.12.)

(88) 絵に描いた餅 (도움이 안됨)

豊洲問題、「地下水管理」は‘絵に描いた餅’となるか?

(도요스 문제, 「지하수 관리」는 그림의 떡이 되는가?)

(東京都議会議員 やながせ裕文 2016. 10. 25)

(89) 縁(えん)の下の力餅 (숨은 공로자)

‘縁の下の力持ち’を上手く自己PRするポイント2つ

(숨은 공로자를 멋있게 자기 PR하는 포인트 2개)

(<https://careerpark.jp> 2016. 09. 03)

(90) 魚は殿様に焼かせよ、餅は乞食に焼かせよ (생선이랑 떡을 잘 굽는 사람. 적임자)

‘魚は殿様に焼かせよ餅は乞食に焼かせよ’というから、彼には部署を移動してもらおう

(생선은 영전에게 굽게 하고, 떡은 거지에게 구우라고 하니 그는 부서를 옮겨다.)

(故事ことわざ辞典<http://kotowaza-allguide.com>)

21) 餅を小豆でできた餡で包んだもの. おはぎ、牡丹餅と同一視されることもあるが、中身が完全な餅であるという点でそれらとは区別されていることが多い. (출전:<https://ja.wikipedia.org/wiki/>)

(떡을 팥으로 만든 고물로 싼 것. おはぎ, 牡丹餅와 동일시되는 점도 있지만 내용물이 완전한 떡이라는 점에서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경우가 많다.)

(91) 画餅(がべい)に帰(き)す (실패로 끝나 허무함)

壮大な計画も‘画餅に帰した.’

(장대한 계획도 실패로 끝났다)

(<https://kotobank.jp/word/>)

(92) 木に餅(もち)がなる(실제로 있을 수 없음)

‘木に餅のなる’のような甘うまい話.

(나무에 떡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말솜씨)

(大辞林 第三版)

‘木に餅のなる’のような話は、選挙用公約では美味しいことを言ってますが、滅多に高速道路を使わない私らにとっては、もしかして、ただの増税という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木に餅のなる와 같은 말은 선거용 공약에서는 달콤하게 말하지만 좀처럼 고속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혹시 단순한 증세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http://blogs.yahoo.co.jp/tomomi965>)

(93) 棚から牡丹餅(ぼたもち)²²⁾ (노력하지 않았는데 행운이 들어오다 : 황재)

おばさんにもらった福引きで1等の旅行が当たった。まさに‘たなからぼたもちね.’

(아주머니에게 받은 추첨에서 1등의 여행의 당첨되었다.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온 셈이다.)

(Yahoo!知恵袋 2007. 12. 20)

(94) 夏の牡丹餅(ぼたもち)犬も食わぬ (상하기 전에 먹는 게 좋다)

‘夏の牡丹餅犬も食わぬ’とは夏の牡丹餅はまずい。また、夏作った牡丹餅は腐りやすい。

(여름의 “牡丹餅”는 개도 먹지 않는다는 여름의 떡은 맛없다. 또한 여름에 만든 떡은 썩기 쉽다.)

(スポンサー広告の記事 <http://blog.goo.ne.jp/> 2012.8.20.)

‘夏の牡丹餅犬も食わぬ’というから、妹が学校から返ってくる前に食べてしまおう。

(여름의 “牡丹餅”는 개도 먹지 않는다고 하니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먹어버리자)

(<http://kotowaza.nikiran.info/1046.html>)

(95) 餅代 (수고비나 상여금)

年末に従業員に‘餅代’として2万円支給しました。

(연말에 종업원들에게 떡값으로 2만엔 지급 하였습니다.)

(<http://www.mrzei.jp/article/13297204.html>)

(96) 餅肌 (하얗고 탄력이 있는 피부)

‘もち肌’とは、自分の肌は毎日触るので自分の肌の感触に慣れきってしまいましたが、

他人と比べるとそれぞれに違いがあるのに結構驚きますよ。

(もち肌라는 것은 자신의 피부는 매일 만지므로 자신의 피부의 감촉에 익숙해지는데, 남과 비교하면 각각 차이가 있다는데 꽤 놀라게 해요.)

(Yahoo!知恵袋 <http://yahoo.co.jp/> 2008. 09. 19)

22) ぼたもち(牡丹餅)는 찹쌀과 멥쌀을 섞은 것을 찜어서 둥글게 한 것에 고물을 묻혀 만든 떡으로 開いた口に牡丹餅라고도 말하며 행운이 들어오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牡丹餅で腰打つ라는 속담도 있다.

(97) 餅は餅屋 (무슨 일이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좋다 : 전문)

独立したときある人に‘餅は餅屋’だから！と言われ、どういうニュアンスなのかなーと思っていました。独立してようやくわかります。

(독립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떡은 떡집이야! 이라고 하기에 어떤 뉘앙스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독립해서 이제야 압니다.)

(スピリタス流 <http://www.spirit-us.jp/> 2016. 09. 13)

(98) 餅を搗く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쓰는 속된 의미)

男女が情を交わす隠語 ‘餅につく’娘は年もふけるなり。

(남녀가 정을 나누는 은어 사랑을 나누는 아가씨는 나이도 들지 않는다.)

(weblio辞典 <http://www.weblio.jp>)

(99) もちを食い酒を飲む(역할이 다름)

‘もちを食い酒を飲む’とは、もちはいくらうまくても、世間づきあいにはもちではできない。酒飲みは、そういう。

(떡을 먹고 술을 마시다는 의미는 떡은 아무리 맛있어도 세상과의 교류는 떡으로는 할 수 없다. 술꾼은 그렇게 말한다.)

(『國語 慣用句 大辞典』白石大二 東京堂出版 1988 p.558)

(100) 焼きもちをやく (야키모치는 질투하는 것으로「妬く」라고 하는 것에서, "떡"이 붙은 말.

일설에는 「妬く」와 「気持ち」에서「妬く気持ち」가 되어 「焼きもち」가 됐다라고도 한다. : 질투)

‘야키もちを妬いてしまう’理由の一つに「自信がない」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ます。

(샘을 내는 이유의 하나로 "자신이 없다"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http://za-sh.com/jealousy-922.html>)

상기와 같이 일본의 ‘떡’을 소재로 하는 (87) ~ (100)예문의 비유표현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이중적 네 가지의 이미지분류를 나누어 살펴보면 【표9】와 같다.

【표9】일본의 떡 이미지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일 본 어	표현의 차			
		긍정	부정	중립	이중
87	あんころ餅で尻叩かれる	○			
88	絵に描いた餅		○		
89	縁の下の力餅	○			
90	魚は殿様に焼かせよ、餅は乞食に焼かせよ	○			
91	画餅に帰す		○		
92	木に餅(もち)がなる			○	

93	棚から牡丹餅(ぼたもち)	○			
94	夏の牡丹餅犬も食わぬ		○		
95	餅代	○			
96	餅肌	○			
97	餅は餅屋	○			
98	餅を搗く		○		
99	もちを食い酒を飲む			○	
100	焼きもちをやく		○		
합 계		7	5	2	0

일본의 ‘떡’을 소재로 하는 14개의 예문에 대한 이미지별로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긍정적 이미지

예문 (87), (93)은 행운과 횡재의 요소로, (89)숨은 공로자, (90)과 (97)은 책임자, (95)보너스, (96)하얗고 탄력이 있는 피부 등의 7개의 이미지로 떡은 한국과 비슷하게 행사나 제례 등의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으로서 떡이 중요하고 신성한 음식을 표현하는 요소 등이 긍정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95)의 떡값(餅代)은 한국에서는 상여금과 뇌물의 이중적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상여금과 신년 축하의 의미로 세뱃돈의 이미지로 한국의 뇌물에 대한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

□ 부정적 이미지

예문 (88)불가능, (91)실패, (94)부패하기 쉬움, (98)속된 남녀의 사랑, (100) 질투 등의 5개 이미지는 신성한 음식으로 여기는 일본의 떡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 중립적 이미지

예문 (98)은 나무에 떡이 열리는 불가능한 요소로, (99)는 술꾼이 술을 예찬하는 비교의 대상으로 신성한 떡을 대조하는 요소로 중립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일본의 ‘떡’을 소재로 하는 (87) ~ (100)에서 나타나듯이 다른 소재에 비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의 떡은 초자연적인 힘이 머무는 성스러운 음식으로써 특별한 음식이다.

떡을 먹으면 평소보다 더 힘이 난다는 찌카라모찌(力餅)라는 말과 일본인은 정월이 되면 각 가정에는 거울 떡을 장식한다. 거울 떡은 신(神)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신은 신사의 거울에 머문다 하여 카가미모찌(鏡餅)가 있다.²³⁾

이와 같은 종교적 영향으로 떡의 이미지를 신성시 하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어서 이는 긍정적 이미지로 연관되어 좋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듯하다.

떡에 대한 비유표현 이미지 차이는 【표9】와 같이 긍정 > 부정 > 중립 > 이중의 이미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같이 긍정적인 표현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한·일 밥, 국, 떡의 의미 분류

선행연구²⁴⁾를 이용하여 【표10】과 같이 의미 분류를 감정심리, 성격태도, 동작행위, 상태가치, 문화 및 사회생활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이 다섯 가지 의미 분류를 다시 세분화하였다.

의미는 분류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선행연구자의 분류표에 의거하여 대분류와 소분류를 하였고 연구자의 관점으로 소분류의 내용에 따라 의미 분류를 하였다. 대분류된 다섯 가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감정심리(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의 작용과 의식)
- 성격태도(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이 나타나는 본성)
- 동작행위(몸이나 손발 따위를 움직이는 동작이나 행위나 그런 모양)
- 상태가치(사물이나 현상이 놓여 있는 모양이나 형편으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 문화 및 사회생활(공동체가 모여 이루는 집단에서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감)

이 분류를 통해 밥, 국, 떡의 비유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3) 石毛直道 전계서p.117

24) 최경봉 전계서)

【표10】의미 분류

	대 분류	소 분류
의미	1. 감정심리	기대, 욕망, 만족감, 놀람, 공포, 우울, 슬픔, 감동 등
	2. 성격태도	인격, 각오, 인내, 관심, 판단, 태도, 책임성, 관심 등
	3. 동작행위	몸동작, 표현행위, 동제, 승부, 행위, 소유, 이용 등
	4. 상태가치	모양, 사정(事情), 정도, 정신상태, 보람, 유사, 가치 등
	5. 사회생활	돈, 노동, 생활, 혈연, 결혼, 생사, 죄와 벌, 직업 등

3.1 밥

3.1.1 한국의 의미 분류

한국의 밥의 예문을 다섯 가지의 의미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감정심리

(5)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상황과 어울리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치다) : 기대, 의욕
김밥에 대한 편견은 이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되었다.

(중앙일보 2014. 04. 24)

(7) 내 밥이다(상대가 만만함) : 심리

너는 ‘내 밥이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많지 않다.

(단비뉴스 2016. 04. 17)

(13) 밥그릇 싸움 (밥벌이를 위한 일자리 다툼) : 욕망

대종상 파행 뒤엔 ‘밥그릇 싸움’ 있었다.

(한국일보 2015. 11. 23)

(18) 밥알이 곤두서다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못마땅함) : 기분

‘밥알을 곤두세워가며’ 하나하나 배식을 하고, 국은 따로 앞사람이 뒤로 전달했다.

(오마이뉴스 연재 전쟁포로 2015. 02. 01)

(21) 밥이 될지 죽이 될지(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 불확실성

‘밥이 될지 죽이 될지도 모르는’ 것에 누가 순순히 돈을 대려고 하겠어?”

(소다요우 플레임왕국 흥망기3 조민정 옮김)

밥의 의미 분류에서 감정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다섯 개로 나타났다. 예문 (5)

는 기대나 의욕으로, (7)은 심리를 나타낸다. (13)은 욕망을, (18)은 기분을, (21)은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 성격태도

(3)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일을 급하게 서두르다.) : 성격, 태도

거하게 한턱 쏜다고 말했다.(중략) 기다릴게. 원래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고애경 위풍당당 나승리)

(8) 눈칫밥을 먹다(기를 펴지 못하고 살다.) : 인내, 태도

서울의 한 고교에서 ‘눈칫밥’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지평선)

(9) 다 된밥에 재 뿌리다(심술궂게 망쳐버린다.) : 성격, 태도

갤럭시 노트7 폭발, ‘다 된 밥’에 재 뿌리나…가전까지 이미지 훼손 우려

(CBC 뉴스 2016. 08. 24)

밥의 의미 분류에서 성격태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세 개로 나타났다. 예문 (3)은 성격, 태도로 나타나고, (8)은 인내, 태도로, (9)는 성격, 태도의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 동작행위

(10)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밥 먹을 때는 시비 걸지 않는다.) : 동작, 행위

하찮은 ‘짐승도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로,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리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꾸짖거나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선닷컴 2015. 07. 1)

(26) 연밥을 먹이다(살살 꼬드기다.) : 동작, 행위

우리말 가운데 ‘연밥 먹이다’는 말이 있는데 ‘살살 구슬러 꼬드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실생활에서도 살려 쓰면 좋은 아름다운 말이다.

(오마이뉴스 2006. 10. 07)

밥의 의미 분류에서 동작행위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두 개로 나타났다. 예문 (10)과(26)은 동작, 행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상태가치

(1) 개밥에 도토리 신세(소외를 당하다.) : 사정, 상태

설령 당장은 판사 일색 대법원에서 ‘개밥에 도토리 신세’라도 그렇게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아침 햇발 ‘개밥에 도토리’라도 좋다 / 여현호)

(2) 그나물에 그밥(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 : 정도, 가치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지겠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다.

(오마이뉴스 2014. 01. 16)

(11)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기쁜 일이 생겨서 마음이 매우 흡족하다.) : 상태
계약금 들어 왔다면? (중략)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아니?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요즘 너무 신나.

(소형 나를 계약해줘 - 스폰 계약 2)

(12) 밥값을 하다(제 역할을 다하다.) : 보람
책 두 권 냈으니 이제 부처님께 '밥값을 했다' 이 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면 바로 나를 아는 사람이지.

(법보신문 밥값을 하다 2016. 05. 16)

(14) 밥 먹듯 하다(예사로 자주 하다.) : 빈도, 정도
'밥 먹듯' 거짓말을 하는 아이였다. 지금은 고쳤다"고 고백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마이데일리 2016. 05. 25)

(15) 밥벌이 하다(일정한 노력을 들여서 먹을 것이나 대가를 얻다.) : 사정, 형제
가업을 잇는다는 거창한 생각보단 이제껏 해온 '밥벌이'니까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조선닷컴 2016. 10. 08)

(28) 찬 밥 더운 밥 안 가리다(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 사정, 정도
지금은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지금 상황은 국가 위기 국면이다.

(매일경제 1977. 11. 26)

(29) 찬밥신세(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 : 사정, 가치
돈 못 버니 '찬밥 신세'... 퇴직 후 돌변한 가족들

(조선닷컴 2016. 06. 16)

(30) 콩밥을 먹다(감옥살이를 하다.) : 상태, 사정
교도소를 의미하는 '콩밥'은 일제 강점기 재소자들이 먹었던 곡식 함유 비율에서 유래했다.

(한국일보 2014.02.23.)

밥의 의미 분류에서 상태가치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9개로 나타났다. 예문 (1)은 사정, 상태로, (2)는 정도, 가치로 나타난다. (11)과 (12)는 상태의 의미로, (14)는 빈도, 정도의 의미로, (15)은 사정, 형제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28)은 사정, 정도로, (29)는 사정, 가치로 사용되어지고, (30)은 상태, 사정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사회생활

- (4) 기름밥을 먹다(노동, 생활) : 기계를 고치며 생활하며 얻는 밥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름밥'만 10년 넘게 먹다보니 현장에서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0. 11. 01)
- (6) 나랏밥을 먹다(직업) : 공무원 생활을 하다
물론이지요. 같이 '나랏밥'을 먹던 사람의 일인데 그 정도도 못해드릴까요.
(건즈백 커스마스터5)
- (16) 밥숟가락을 놓다(노동, 생활) : 생을 다하다, 그만두다
'밥숟가락을 놓다'라는 말은 완곡하지만 죽음의 본질을 꿰뚫는 비수 같은 표현이기에 밥은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다.
(아시아 경제 최종수정 2015. 03. 27)
- (17) 밥술이나 먹다 (부유) : 어지간히 사는 형편
이 덕은 겉으로는 양반이지만 알속은 그저 장사하여 '밥술이나 먹는' 집이우.
(황석영 장길산)
- (19) 밥을 먹다(노동, 생활) : 어떤 분야에 종사하다
선생이란 직업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경봉 우리말 관용사전 p.458)
- (20) 밥을 축내다(생활) : 일정한 수나 양에서 모자람이 생기게 하다
'밥을 축내다'가 변기에 앉을 때, 힘은 그 때 쓰고 되도록 멍해지겠소.
(백상용 태업의 강도 -울림을 주는 시59)
- (22) 밥이 보약이다(생존, 생활) : 건강에는 밥을 잘 먹는 것이 우선
'밥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밥도 종류가 많네요!
(ijkaha.blog.me/ 2016. 10. 12)
- (23) 밥줄을 끊다(노동, 생존, 생활) : 벌어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끊다
PD에게 네티즌들은 PD가, 남의 '밥줄 끊다'가 본인 밥줄이 끊겼네.
(조선일보 2015. 03. 26)
- (24) 밥줄이 걸리다(노동, 생존, 생활) :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을 얻고 잃는 문제
나도 우선 당장 '밥줄이 걸리다'보니 조금은 비겁해졌다.
(<http://blog.naver.com/didtjrwns123>)
- (25) 밥줄이 끊기다(노동, 생존, 생활) : 해고되다
벌거벗고 살게 되는 날이면 주인아줌마도 나도 '밥줄이 끊어지고' 만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 (27) 짬밥(직업) : 연륜
삼촌!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장난할 '짬밥'이냐?
(박경철 리더스북 p.22)

(31) 한솥밥을 먹다(생활) : 함께 생활하며 지내다 식구

촬영에 합류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한 솥밥을 먹은’ 식구 인양 스태프들과 이미 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스포츠 조선 2016. 06. 02)

밥의 의미 분류에서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모두 열두 개로 나타났다. 예문 (4)는 노동, 생활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6)은 직업의 의미로, (16)은 노동, 생활로 나타나고, (17)은 부유로, (19)는 노동, 생활의 의미로, (20)은 생활의 의미로 나타나고, (22)는 생존, 생활로, (23),(24),(25)는 노동, 생활의 의미로 방법이나 수단으로 나타나고, (27)은 직업의 의미로, (31)은 생활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한국의 밥은 예문 (1) ~ (31)에서 보듯이 안정(밥벌이 하다), 노동(밥줄이 걸리다), (생활)밥이 보약이다, (사정)찬 밥 더운 밥 안 가리다 등과 같이 ‘밥’을 소재로 하는 의미 분류에서 한국은 직업이나 생계유지, 건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생활 > 상태가치 > 감정심리 > 성격태도 > 동작행위 순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아래의 【표1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11】한국의 밥의 의미 분류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의미 분류(대분류)				
		감정 심리	성격 태도	동작 행위	상태 가치	사회 생활
1	개밥에 도토리(신세)				○	
2	그 나물에 그 밥				○	
3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			
4	기름밥을 먹다					○
5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				
6	나랏밥을 먹다					○
7	내 밥이다	○				
8	눈칫밥을 먹다		○			
9	다 된밥에 재 뿌리다		○			
10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		
11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	

12	밥값을 하다				○	
13	밥그릇(싸움)	○				
14	밥 먹듯 하다				○	
15	밥벌이 하다				○	
16	밥손가락을 놓다					○
17	밥술이나 먹다					○
18	밥알이 곤두서다	○				
19	밥을 먹다					○
20	밥을 축내다					○
21	밥이 될지 죽이 될지	○				
22	밥이 보약이다					○
23	밥줄을 끊다					○
24	밥줄이 걸리다					○
25	밥줄이 끊기다					○
26	연밥을 먹이다			○		
27	짬밥					○
28	찬 밥 더운 밥 안 가리다				○	
29	찬밥신세				○	
30	콩밥을 먹다				○	
31	한솔밥을 먹다					○
합 계		5	3	2	9	12

3.1.2 일본의 의미 분류

일본의 밥의 예문을 다섯 가지의 의미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감정심리

(33) いつも月夜に米の飯(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 기대, 희망

昔の人にとって月の光はありがたく、米の飯は貴重だったため、それが毎日続けば言うことがないという意から‘月夜に米の飯’ともいう。

(옛 사람에게 달빛은 감사하다. 쌀밥이 귀했기 때문에 그것이 매일 계속되면 말할 것도 없다는 뜻에서. 달밤에 쌀밥이라고도 한다.)

(故事・ことわざ辞典)

감정심리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하나로 예문 (33)은 기대와 희망을 나타내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성격태도

(35) 他人の飯を食う(눈칫밥을 먹다) : 인내, 태도

‘他人の飯を食う’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これは親もとを離れて、他人の間で苦労を味わい、社会の経験を積むことという意味で実際によく使われています。
(남의 밥을 먹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 슬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밑에서 고생을 맛보며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이란 뜻으로 실제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Yahoo!知恵袋 2012. 02. 13)

성격태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도 하나의 예문으로 (35)는 인내를 나타내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동작행위

(38) 無駄飯を食う(도움이 안 되다, 무익한 나날을 보내다) : 이용, 행위

祖先の手柄というだけで、何百年‘無駄飯を食う’祿盗人の三百人や五百人。
(조상의 공적이라는 것만으로 수백년 놀고먹는 월급 도둑의 삼백명에서 오백명.)
(野村胡堂 奇談クラブ〔戦後版〕大名の倅)

(41) 飯を食ってすぐに寝ると牛になる(식사를 하고 바로 누우면 소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아이를 훈육하는 말.) : 동작, 행위

‘食べてすぐ横になったら牛になる’という言い伝えに医学上の根拠はあるのか?
(밥을 먹고 바로 자면 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의학상 근거가 있는 것인가?)
(<http://wooris.jp/archives/14177>)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두 개로 나타났다. 예문 (38)은 이용, 행위로 나타나고, (41)은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

□ 상태가치

(32) 朝飯前(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 사정, 정도

千曳(ちびき)の大岩を転がすなどは‘朝飯前’の仕事である。
(무거운 바위를 움직이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처럼 간단한 일이다.)
(芥川龍之介 僻見)

(39) 飯の食上げ(수입이 없어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사정, 정도

低俗な聴衆を狙う流行歌手などは、近いうちに‘飯の食い上げ’さ。
(저속한 청중을 노리는 유행 가수 등은 곧 일자리를 잃는다.)
(野村胡堂 音波の殺人)

(36) 熊野松風は米の飯(쌀밥과 같이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명곡) : 사정, 상태

謡曲の‘熊野と松風’の曲は、米の飯と同じようにだれにでも好まれる曲だということ。
(요료큐의 큐마노 마츠가제의 곡은 쌀밥과 같이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곡이라는 것)
(<http://kotowaza.exblog.jp/20216696/> 2014. 05. 16)

밥의 의미 분류에서 상태가치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세 개로 나타났다. 예문 (32)는 사정, 정도의 의미로, (39)는 사정, 정도로, (36)은 사정, 상태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사회생활

(34) 同じ釜の飯を食う(함께 생활하는 동고동락) : 관계, 생활

山崎は京都にいた時分には、同じ釜の飯を食った人である.

(야마자키는 교토에 있던 시절에는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다.)

(中里介山 大菩薩峠 無明の巻)

(36) 冷や飯を食う(대우를 받지 못하다.) : 생활, 노동

上司にねたまれ、冷や飯を食わされる.

(상사의 시샘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https://kotobank.jp/word/>)

(40) 飯の種(생활의 수단, 수입을 얻는 방법) : 노동, 직업

そもそも、学問を‘飯の種’にするということは、本来誤った考えでありますけれど、学者だとして人間である以上食わずに生きて居ることは出来ません.

(원래 학문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것은 본래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학자라고 해도 인간인 이상 먹지 않고 살아 갈 수는 없습니다.)

(小酒井不木 新案探偵法)

(42) 飯を食う(생계를 세우다.) : 생계, 생활

‘飯を食う’ことが日本でいけば法学士になる一つの要件である。その飯を食わなければ裁判官や弁護士にはなれない.

(밥을 먹는 것이 일본에서 말하자면 법학사가 되는 하나의 요건이다. 그 밥을 먹지 않으면 판사나 변호사가 될 수 없다.)

(木弘巖太郎 小知恵にとらわれた現代の法律学)

밥의 의미 분류에서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네 개로 나타났다. 예문 (34)는 관계, 생활로 사용되어지고, (36)은 생활, 노동 의미로, (40)은 노동, 직업으로 나타나고, (42)는 생계, 노동, 생활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일본의 밥은 예문 (32) ~ (42)에서 보듯이 생활의 수단(飯の種), 생계를 세우다(飯を食う)와 같이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직업이나 생계유지, 건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미 분류비율은 사회생활 > 상태가치 > 동작행위 > 감정심리 > 성격태도 순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아래의 【표1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12】일본의 밥의 의미 분류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의미 분류(대분류)				
		감정 심리	성격 태도	동작 행위	상태 가치	사회 생활
32	朝飯前				○	
33	いつも月夜に米の飯	○				
34	同じ釜の飯を食う					○
35	他人の飯を食う		○			
36	熊野松風は米の飯				○	
36	冷や飯を食う					○
38	無駄飯を食う			○		
39	飯の食上げ				○	
40	飯の種					○
41	飯を食ってすぐに寝ると牛になる			○		
42	飯を食う					○
합 계		1	1	2	3	4

3.2 국

양국은 모두 국물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국물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잦아 흉년이나 기근 등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간단하게 밥을 국에 말아먹는 식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자연스럽게 국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나누어 먹으며 화합의 의미와 정을 나누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일본은 섬나라의 특성상 육식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여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콩을 이용한 음식이 발달하여 미소시루(된장국)를 중심으로 국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한국에 비해 그 다양성은 다소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국에 말아먹는 의미는 화합과 정을 나누는 의미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국에 밥 말아먹으면 거지가 된다’는 의미로 나타나듯이 국물의 의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2.1 한국의 국 의미 분류

한국의 국의 예문을 다섯 가지의 의미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감정심리

- (46) 김치국부터 마시다(상대편의 속도 모르고 제 짐작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 기대) : 기대, 욕망

여자는 맘도 없는 것 같은데 남자 혼자 '김치국부터 마신다.'

(조선닷컴 2013. 05. 30)

- (50) 식은 국도 불고 먹는다 (뜨거운 국에 한 번 놀란 후에는 식은 국도 불면서 먹는다) : 놀람, 당황

뜨거운 국에 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식은 국도 불면서 먹는다'는 뜻으로, 한 번 놀란 후에는 조심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소년한국일보 오늘의 속담 2010. 10. 28)

감정심리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두 개로 나타났다. 예문 (46)은 기대, 욕망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50)은 놀람, 당황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성격태도

- (44) 고기만진 손 국솥에 찌으랴(손에 묻은 고기비린내가 아깝다고 그 손을 국솥에 찌지 않는 인색한 사람) : 인정, 도량

모두가 힘든 시절, '고기 만진 손이라도 국물을 내기 위해 솥에 찌는다'는 말로 인색한 사람을 나무랄 때 사용하기도 한다.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 2010. 05. 20)

- (52) 장 없는 놈이 국 즐긴다(자신의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사치를 즐기다.) : 성격, 태도
자기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일삼는 사람에게는 '장 없는 놈이 국 즐긴다'고 나무랐다.

(경향신문 2006. 10. 19)

성격태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에서도 두 개로 나타났다. 예문 (44)는 인정, 도량으로 사용되어지고, (52)는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아니하는 성격, 태도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동작행위

- (48) 끓는 국에 맛 모른다(영문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함) : 동작, 행위

'끓는 국에 맛 모른다' 하였으니 급하게 서두르면 분별력이 흐트러지므로 함부로 행동하게 되느니라.

(경향신문 2006. 10. 19)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에서도 하나로 나타났다. 예문 (48)은 영문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함을 이르는 동작, 행위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상태가치

- (45) 국물도 없다(돌아오는 몫이나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 성과, 보람
통일부 장관은 헌정회 초청 강연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뉴스 2014. 03. 05)
- (47) 꺾저기탕에 개구리 죽는다(아무 까닭 없이 억울하게 희생되다.) : 사정, 상태
속담에 '꺾저기탕에 개구리 죽는다'라는 게 있다. (중략) 뜻밖에 당하는 재앙이나 사나운 운수가 닥쳤을 때를 말한다.
(한국무역신문사 이승열 칼럼/‘양급지어’의 아픔 겪는 국적 항공사)
- (51) 썩국을 먹다(어떤 일에 크게 실패하여 골탕을 먹다.) : 사정, 상태
며느리가 해산을 했는데 야속한 시어미가 미역국을 안 끓여 주고 '썩국만 끓여 주었다.'

(채만식 썩국새)

상태가치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세 개로 나타났다. 예문 (45)는 성과, 보람 의미로, (47)과 (51)은 사정, 상태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사회생활

- (43) 가시어미 장 떨어지자 사위가 국 싫다한다(장이 떨어져서 국을 끓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국은 싫어서 먹지 않겠다고 하다.) : 생활, 가정
무슨 일이 썩 잘 들어맞는 걸 두고 '가시어미 장 떨어지자 사위가 국 싫다한다'고 이르는 속담이 아직 있기는 있다.
(제민일보 2000. 07. 27)
- (49) 미역국을 먹다(낙방하다 시험에 떨어지다.) : 학업, 직업, 출세
미끈미끈한 점액질 때문에 미끄러지다 또는 떨어지다는 말을 연상시킨다. '미역국(을) 먹다'는 말은 시험에 미끄러져 낙방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뜻으로 쓰인다.

(문화일보 2012. 11. 06)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두 개로 나타났다. 예문 (43)은 생활, 가정의 의미로, (49)는 학업, 직업, 출세를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한국의 국의 예문(43) ~ (52)에서 보듯이 '국물도 없다', '꺾저기탕에 개구

리 죽는다.’ ‘쭈국을 먹다’와 같이 나타나듯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성과와 보람이 없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요소가 많아 상태가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이 주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 분류비율은 사회생활 > 상태가치 > 성격태도 > 감정심리=동작행위 순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아래의 【표13】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13】한국의 국 의미 분류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의미 분류(대분류)				
		감정 심리	성격 태도	동작 행위	상태 가치	사회 생활
43	가시어미 장 떨어지자 사위가 국 싫다한다					○
44	고기만진 손 국솥에 씻으랴		○			
45	국물도 없다				○	
46	김치국부터 마시다					○
47	꼭저기탕에 개구리 죽는다				○	
48	끓는 국에 맛 모른다			○		
49	미역국을 먹다					○
50	식은 국도 불고 먹는다	○				
51	쭈국을 먹다				○	
52	장 없는 놈이 국 즐긴다		○			
합 계		1	2	1	3	3

3.2.2 일본의 의미 분류

일본의 국의 예문을 다섯 가지의 의미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감정심리

(57) 馬鹿の三杯汁(식사할 때 국을 세 그릇 먹는 것을 바보 취급하는 말로 기준을 넘어 더 바라다.) : 욕심

私の子供の頃は味噌汁のお替りを2度すると、‘馬鹿の三杯汁って’言うんだよと言われたものである。何でそんな言葉が出来たのか私は知らない。

(제가 어렸을 때 된장 국 리필을 2번 하면 馬鹿の三杯汁って라고 말하였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난 모르겠다.)

(<http://ameblo.jp/asa1021bun/entry>)

감정심리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하나로 나타났다. 예문 (57)은 기준을 넘어 더 바라다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성격태도

(54) 甘い汁を吸う(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다.) : 인격, 태도

石原慎太郎の時も、猪瀬直樹の時代も、‘甘い汁だけ吸って’ほくそ笑んでいるのが都庁の官僚たちだ.

(이시하라 신타로의 때도 이노세나오키의 시대도, 단물만 마시고 싱글거리고 있는 것은 도청의 관료들이다.)

(<http://blogos.com/article/154071>)

성격태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 예문 (54)는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인격, 태도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동작행위

(55) てまえみそ(자신의 집에서 만든 된장이 맛을 자랑하다.) : 표현행위

先生のような大家なら、なんでも自由にお作りになれるだろうと存じておりましたが、いや、天 二物(にぶつ)を …これはとんだ ‘てまえみそ’になりました.

(선생님처럼 대가라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하늘은 두 가지를 … 이것은 대단한 자화자찬이 되었습니다.)

(芥川龍之介 戯作三昧)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 예문 (55)는 자신의 집에서 만든 된장이 맛을 자랑하는 표현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 상태가치

(53) 灰汁(あく)が抜ける(세련되다.) : 모양

ダウンタウン松本人志は結婚してから‘灰汁が抜けた’

(다운타운 마츠모토 히토시는 결혼하고 나서 세련되어졌다.)

(https://dicpedia.blogspot.kr/2015/03/blog-post_54.html)

(58) 味噌も糞(くそ)も一緒(어떤 사항에 대해 동일시 취급) : 상태, 가치

‘味噌も糞(くそ)も一緒’ 清いものも汚れたものも同じに扱うこと。また、善悪・優劣の区別をしないこと。めちゃくちゃであること.

(된장도 똥도 같다 맑은 것도 더러워진 것도 같게 취급하는 것. 또 선악, 우열의 구분을 하지 않는 것. 뒤죽박죽인 것.)

(Yahoo!知恵袋 2010. 09. 29)

상태가치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두 개로 나타났다. 예문 (53)은 모양으로, (58)은 상태, 가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사회생활

(예56) 汁を吸っても同罪(조그만 연관되어도 같은 죄) : 죄, 벌

少なくともその時は美味しい'汁を吸ったのですから同罪'であり、決して被害者ではありません。

(적어도 그때는 맛있는 국을 먹었기 때문에 동죄이고 결코 피해자가 아니다.)

(<http://blogos.com/article/154071>)

국의 의미 분류에서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하나로 나타났다. 예문 (56)은 죄와 벌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일본의 국은 예문 (53) ~ (58)에서 보듯이 다른 소재에서는 대부분 직업이나 생계에 대한 뜻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국은 소분류 항목인 자만(てまえみそ), 이용(甘い汁を吸う), 모양(灰汁が抜ける)등의 의미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상태가치 > 사회생활=성격태도=감정심리=동작행위 순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아래의 【표14】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양국은 모두 국물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국물의 의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을 먹는다’ 표현을 일본에서는 ‘국을 마신다’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국에 대한 의미 분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소재에서는 공통적인 요소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 한·일 간의 국에 대한 유사표현은 없었고, 국의 용례도 한국에 비해 적다.

한국에서는 국은 실제적으로 가난의 의미로 나타나지만 일본에서는 ‘국에 밥 말아먹으면 거지가 된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밥에 비해 무게가 가벼운 느낌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4】일본의 국의 의미 분류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의미 분류(대분류)				
		감정 심리	성격 태도	동작 행위	상태 가치	사회 생활
53	灰汁(あく)が抜ける				○	
54	甘い汁を吸う		○			

55	てまえみそ			○		
56	汁を吸っても同罪					○
57	馬鹿の三杯汁	○				
58	味噌も糞(くそ)も一緒				○	
합 계		1	1	1	2	1

3.3 떡

양국은 떡에 대한 역사나 문화가 비슷하여 비유표현의 차와 의미적인 분류에서도 문화적 역사적 관점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떡은 양국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한국은 정월 초하루에는 떡국을 만들어 먹고, 추석에는 송편, 구월 구일 중양절(重陽節)에는 국화전, 음력 시월에는 시루떡과 같이 계절마다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 세시 풍습이 있다. 일본에서도 떡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머무는 성스러운 음식으로 치카라모찌(力餅)이라는 말과, 신(神)은 신사의 거울에 머문다하는 카가미모찌(鏡餅) 등의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도 양국은 비슷한 문화적 성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

3.3.1 한국의 의미 분류

한국의 떡의 예문을 다섯 가지의 의미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감정심리

(62) 꿀떡 같다(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간절한 마음) : 간절함, 절실함
아침을 굶었더니 점심시간이 아직 멀었는데도 밥 생각이 ‘꿀떡 같다.’

(<http://blog.naver.com/> 2015. 05. 23)

(64) 남의 떡이 커 보이다 (남의 것이 제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 만족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성격이 아니라 처음 만나 인연을 같이 했던 사람과 오래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서울 2016. 10. 24)

(77)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다 (미리 손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다.) : 기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부모는 ‘미운 자식일수록 떡 하나 더 주게 된다.’고 말한다.

(매일경제 2016. 04. 09)

(83) 입에 맞는 떡 (마음에 꼭 드는 일이나 물건) : 기대, 욕망

살면서 늘 '입에 맞는 떡'만 먹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아니면 최악 대신 차악의 선택이 있다.

(news1 2016. 04. 11)

감정심리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네 개로 나타났다. 예문 (62)는 간절함, 절실함으로 사용되어지고, (64)는 만족감 의미로, (77)은 기대를 나타내고, (83)은 기대,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 성격태도

(60)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 : 성격, 태도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란 속담도 재미있다. 무당이 굶을 끝내고 구경꾼에게 나눠 주는 떡이 계면떡인데, 남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이익이나 얻으라는 얘기다.

(동아닷컴-귀신 찢나락 까먹는 소리- 2016. 08. 09)

(65) 누워서 떡먹기 (아주 쉬운 일) : 능숙도, 여유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게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들은 재미있는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동상이몽 <http://www.tvreport.co.kr/> 2016. 03. 08)

(86) 찰떡궁합 (완벽한 조합) : 성격

된장과 초콜릿은 '찰떡궁합'입니다.

(조선닷컴 2016. 05. 11)

성격태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세 개로 나타났다. 예문 (60)은 성격, 태도로 사용되어지고, (65)는 능숙도, 여유로, (86)은 성격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동작행위

(70) 떡 주무르듯 하다 (마음대로 다루는 전황을 휘두르다.) : 통제, 주도

'떡 주무르듯 하다'에서의 떡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다는 말이다.

(대전일보 떡 이야기 2006. 12. 12)

(72) 떡(이)되다 (크게 곤욕을 당하다.) : 곤경, 경쟁

어제 좀 과음을 하긴 했지, (중략) 어제 담배의 유혹을 이기고자 술을 마셨고 결국은 술이 '떡이 되었지'

(<http://blog.naver.com/herry> 2004. 03. 26)

(81) 아이 가진 떡 (쉬운 상대) : 통제, 주도

어린 '아이 가진 떡도 뺏어 먹는다.' 어린아이가 가진 떡까지 빼앗아 먹는 염치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http://blog.daum.net/asdic1>)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세 개로 나타났다. 예문 (70)은 통제, 주도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72)는 곤경, 경쟁을 나타내고, (81)도 통제, 주도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상태가치

- (61) 그림의 떡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 : 성패 보람
양봉농가 가축재해보험 '그림의 떡'...꿀벌 피해 속수무책
(연합뉴스 2016. 10. 19)
- (66) 양손의 떡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르다.) : 상태, 가치
위원장은 '양 손에 떡'두 개 들고 뭘 먹을까 고민
(스페셜경제 2016. 08. 16)
- (74) 떡고물 (부정하게 얻는 금품) : 성패, 보람
'떡고물을 줄여서 필요한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2008. 02. 15)
- (67) 떡 먹듯 (예사로 쉽게) : 수준
생각해 보시오 태평양을 건너서 양행하는 일이 '떡 먹듯 할 수 있는' 일이겠소?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3부2권)
- (69) 떡 주고 뺨 맞는다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해 주고 도리어 욕을 봄.) : 사정, 형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수학여행 대상 1번지였던 경주(중략) 중국의 미니어처를 보는 것 같다는 말에 '떡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나?
(sib news.com 2016. 06. 20)
- (71) 떡 해 먹을 세상 (뒤숭숭하고 굶은일만 있는 세상) : 생활
요즘은 참으로 '떡 해 먹을 세상'이다. 뒤숭숭하고 굶은 일이 잦아 삶이 불안해서 그렇다. 무질서가 판친다. 법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
(중부매일 2016. 04. 01)
- (75) 떡을 치다 (양이나 정도가 충분하다.) : 정도, 성패
영어 교육 강화 의문이 제기되지만 '떡을 치고도 남는다. 아예 필요조차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닷컴. 2008. 02. 01)
- (78)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겉모양새를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함) : 모양, 상태
맛은 장담할 수 없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다. 외형을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T동아 2016. 10. 21)
- (80) 싼 게 비지떡 (가격이 싼 것은 싼 값을 한다.) : 모양, 수준
'싼 게 비지떡'?...저렴한 경유 알고 보니 가짜!
(MBN 뉴스 2016. 10. 18)

(84) 제 떡 먹기라 (원래 자기 몫) : 성패, 이기심

이 취업난 시대에 남 줄 게 어디 있느냐며 이 소나기 지나고 나면 다시 ‘제 떡 제 먹기’할 궁리에 골몰할 것임!

(경북도민일보 2016. 07. 08)

(85)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도 놓친다.) : 능력, 수준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군’ 쌍방울 1회 말 무사 1루 그때 해태 김상진의 투수보크, 투구동작을 취하다 갑자기 와인드업 모션을 풀어 곧바로 보크가 선언됐다.

(경향신문 1996. 09. 06)

상태가치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모두 열한 개로 나타났다. 예문 (61)은 성패 보람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66)은 상태, 가치 의미로, (74)는 부정하게 얻는 금품의 성패, 보람 의미로 나타나고, (67)은 수준의 의미로 나타나고, (69)는 사정, 형세로, (71)은 뒤숭숭하고 궂은일만 있는 세상의 생활의 의미로 나타나고, (75)는 정도, 성패로, (78)은 모양, 상태 의미로, (80)은 모양, 수준 의미로, (84)는 성패, 이기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85)는 능력, 수준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사회생활

(59) 굴러들어 온 떡 (뜻밖의 이익) : 운수, 횡재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무작정 탄 박명수는 ‘굴러 들어온 떡’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한국일보 2011. 11. 20)

(63) 남의 떡에 설 쇠다 (남의 덕택으로 거저 이익을 보게 되다.) : 운수, 횡재

비록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남의 떡에 설 쇠다’는 설날 속담처럼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설날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이투데이 -설은 질어야 좋다!- 2016. 02. 02)

(68)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다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음) : 운수, 횡재

추경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떡 본 김에 제사 본다’는 식의 무분별한 추경 편성 움직임은 견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300, -무분별한 추경 편성은 경계- 2016. 06. 20)

(73) 떡값 (뇌물) : 돈, 상거래

꾸준히 대출 관련 청탁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행장이 받아들인 명절 ‘떡값’이 실질적으로 뇌물성 자금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했다.

(연합뉴스 2016. 09. 23)

(76) 떡이 생기다 (뜻밖에 이익이 생기다.) : 운수, 횡재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다.

(중앙 썬데이 2015. 12. 06)

(79) 봄 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봄에는 누구나 굳것질을 좋아함) : 생리현상
 우리말로 보릿고개라고도 한다. ‘봄 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봄 사돈
 은 꿈에 보아도 무섭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동아일보 -춘궁기- 2000. 05. 02)

(82) 웬 떡이야 (뜻밖의 행운) : 운수, 횡재
 국밥 시키면 수육 공짜, 이게 ‘웬 떡이야’
 (오마이뉴스 2016. 08. 26)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모두 일곱 개로 나타났다. 예문 (59),(63),(76),(82)는 뜻밖의 이익의 운수, 횡재로 사용되어지고, (68)은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는 운수, 횡재의 의미로, (73)은 돈, 상거래로, (79)는 생리적 욕구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한국의 떡은 예문 (59) ~ (86)에서 보듯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밥과 국에서는 직업과 생계의 삶을 유지하는 의미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먹고살기 힘든 시절의 떡은 ‘그림의 떡’, ‘떡고물’,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등과 같이 귀중한 음식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떡은 행운이나 횡재를 나타내는 의미로 ‘굴러들어 온 떡’, ‘웬 떡이야’,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다’와 같이 중요한 행사나 제례의 음식으로 일상의 음식이 아닌 귀중한 음식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의미 분류비율은 상태가치 > 사회생활 > 감정심리 > 성격태도=동작행위 순으로 아래의 【표1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15】한국의 떡 의미 분류

구분 순번	비유표현 한 국 어	의미 분류(대분류)				
		감정 심리	성격 태도	동작 행위	상태 가치	사회 생활
59	굴러들어 온 떡					○
60	긋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			
61	그림의 떡				○	
62	꿀떡 같다	○				
63	남의 떡에 설 쇠다					○
64	남의 떡이 커 보이다	○				

65	누워서 떡먹기		○			
66	양손의 떡				○	
67	떡 먹듯				○	
68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다					○
69	떡 주고 뺨 맞는다				○	
70	떡 주무르듯 하다			○		
71	떡 해 먹을 세상				○	
72	떡(이)되다			○		
73	떡값					○
74	떡고물				○	
75	떡을 치다				○	
76	떡이 생기다					○
77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다	○				
78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79	봄 떡은 들어앉은 산님도 먹는다					○
80	싼 게 비지떡				○	
81	아이가진 떡			○		
82	웬 떡이야					○
83	입에 맞는 떡	○				
84	제 떡 먹기라				○	
85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다				○	
86	찰떡궁합		○			
합 계		4	3	3	11	7

3.3.2 일본의 의미 분류

일본의 떡의 예문을 다섯 가지의 의미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감정심리

(100) 焼きもちをやく(질투하다.) : 욕망

‘야키もちを妬いて’しまう理由の一つに「自信がない」ということが挙げられます.

(샘을 내는 이유의 하나로 "자신이 없다"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http://za-sh.com/jealousy-922.html>)

감정심리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한 개로 나타났다. 예문 (100)은 질투하는 욕망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성격태도

(89) 縁の下の力餅 (숨은 노력자) : 성격, 태도

‘縁の下の力持ち’を上手く自己PRするポイント2つ

(숨은 공로자를 멋있게 자기 PR하는 포인트 2개)

(<https://careerpark.jp> 2016. 09. 03)

성격태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 예문 (89)는 성격, 태도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동작행위

(98) 餅を搗く (정을 나누다) : 동작, 행위

男女が情を交わす隠語 ‘餅につく’娘は年もふけるなり

(남녀가 정을 나누는 은어 사랑을 나누는 아가씨는 나이도 들지 않는다.)

(weblio辞典 <http://www.weblio.jp>)

(92) 木に餅がなる(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다.) : 소통

‘木に餅のなる’ような甘うまい話

(나무에 떡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말솜씨.)

(大辞林 第三版)

동작행위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두 개로 나타났다. 예문 (98)은 동작, 행위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92)는 소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 상태가치

(88) 絵に描いた餅(그림의 떡) : 성패 보람

豊洲問題。「地下水管理」は‘絵に描いた餅’となるか?

(도요스 문제."지하수 관리"는 그림의 떡이 되는가?)

(東京都議会議員 やながせ裕文 2016. 10. 25)

(91) 画餅(がべい)に帰(き)す (계획이 실패로 끝나다.) : 성패 보람

‘画餅に帰す’とは絵に描いた餅のことで、それがいかに巧みにかかれていても、すき腹を満たすことは出来ないし役立ちもしない.

(가베이에 키스는 그림에 떡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걸리어져 있어도 공복을 채우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http://kotowaza.exblog.jp/>)

(94) 夏の牡丹餅犬も食わぬ (상하기 전에 먹는 게 좋다.) : 성패 보람

‘夏の牡丹餅犬も食わぬ’というから、妹が学校から返ってくる前に食べてしまおう。

(여름의 牡丹餅는 개도 먹지 않는다고 하니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먹어버리자.)

(スポンサー広告の記事 <http://blog.goo.ne.jp/> 2012. 08.20)

(96) 餅肌(하얀 피부) : 정도

‘もち肌’とは、自分の肌は毎日触るので自分の肌の感触に慣れきてしましますが、他人と比べるとそれぞれに違いがあるのに結構驚きますよ。

(もち肌라는 것은 자신의 피부는 매일 만지므로 자신의 피부의 감촉에 익숙해지는데, 남과 비교하면 각각 차이가 있다는데 꽤 놀랄걸요.)

(Yahoo!知恵袋 <http://yahoo.co.jp/> 2008. 09. 19)

(99) もちを食い酒を飲む(떡으로는 세상을 논할 수 없다.) : 정도

‘もちを食い酒を飲む’とは、もちはいくらうまくても、世間づきあいにはもちではできない。酒飲みは、そういう。

(떡을 먹고 술을 마시다는 의미는 떡은 아무리 맛있어도 세상과의 교류는 떡으로는 할 수 없다. 술꾼은 그렇게 말한다.)

(『國語 慣用句 大辞典』白石大二 1988 p.558)

상태가치를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다섯 개로 나타났다. 예문 (88),(91),(94)는 성패 보람으로 사용되어지고, (96),(99)는 정도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사회생활

(87) あんころ餅で尻叩かれる (뜻하지 않은 행운이 들어오다.) : 운수, 횡재

‘あんころ餅で尻叩かれる’ようとは、思いがけない幸せにあう事で、おはぎか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が中身が餅なので別物のようです。

(あんころ餅で尻叩かれる는 뜻밖의 행운이 있는 것으로 おはぎ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속이 떡이라 다른 것 같다.)

(<http://zaitaku633933.blog.fc2.com> 2016. 01. 12)

(90) 魚は殿様に焼かせよ、餅は乞食に焼かせよ (일은 책임자를 시켜야 한다.) : 솜씨

‘魚は殿様に焼かせよ餅は乞食に焼かせよ’というから、彼には部署を移動してもらおう(생선은 영전에게 굽게 하고, 떡은 거지에게 구우라고 하니 그는 부서를 옮겨다.)

(故事ことわざ辞典<http://kotowaza-allguide.com>)

(93) 棚から牡丹餅 (굴러들어온 호박) : 운수, 횡재

おばさんにもらった福引きで1等の旅行が当たった。まさに‘たなからぼたもち’ね。

(아주머니에게 받은 추첨에서 1등의 여행의 당첨되었다. 호박이甕굴째로 들어온 셈이다.)

(Yahoo!知恵袋 2007. 12. 20)

(95) 餅代 (상여금, 수고비) : 노동, 생활

年末に従業員に‘餅代’として2万円支給しました。

(연말에 종업원들에게 떡값으로 2만엔 지급 하였습니다.)

(<http://www.mrzei.jp/article/13297204.html>)

(97) 餅は餅屋 (전문가에게 시켜야 한다.) : 솜씨

独立したときある人に‘餅は餅屋’だから！と言われ、どういうニュアンスなのかなーと思っていました。独立してようやくわかります。

(독립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떡은 떡집이야! 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독립해서 이제야 압니다.)

(スピリタス流 <http://www.spirit-us.jp/> 2016. 09. 13)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비유표현은 다섯 개로 나타났다. 예문 (87), (93)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 들어오는 운수, 횡재의미로 사용되어지고, (90),(97)은 솜씨로 사용되어지고, (95)는 노동, 생활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일본의 떡은 예문 (87) ~ (100)에서 보듯이 한국의 떡과 같이 귀중한 음식으로서의 행운이나 횡재의 의미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소분류에서 솜씨를 의미하는 전문가(魚は殿様に焼かせよ、餅は乞食に焼かせよ), 전문 집(餅は餅屋) 등의 예로 볼 때 떡은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전문가에 맡길 정도의 소중한 음식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의미 분류비율은 사회생활=상태가치 > 동작행위 > 감정심리=성격태도 순으로 아래의 【표16】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16】일본의 떡 의미 분류

구분 순번	비유표현	의미 분류(대분류)				
		감정 심리	성격 태도	동작 행위	상태 가치	사회 생활
87	あんころ餅で尻叩かれる					○
88	絵に描いた餅				○	
89	縁の下の力餅		○			
90	魚は殿様に焼かせよ、餅は乞食に焼かせよ					○
91	画餅に帰す				○	
92	木に餅(もち)がなる			○		

93	棚から牡丹餅(ぼたもち)					○
94	夏の牡丹餅犬も食わぬ				○	
95	餅代					○
96	餅肌				○	
97	餅は餅屋					○
98	餅を搗く			○		
99	もちを食い酒を飲む				○	
100	焼きもちをやく	○				
합 계		1	1	2	5	5

4. 양국의 이미지·의미 분류 차이

앞 장에서 이미지와 의미 분류를 통하여 밥, 국, 떡에 대한 양국의 비유표현은 여러 이미지와 의미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았다.

한국과 일본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공통의 식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상이한 점도 존재한다. 음식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음식을 차리는 법, 음식의 도구, 식사예절 등이 모두 식 문화에 해당되어 음식을 통하여 그 나라 국민의 개성과 문화를 일정 부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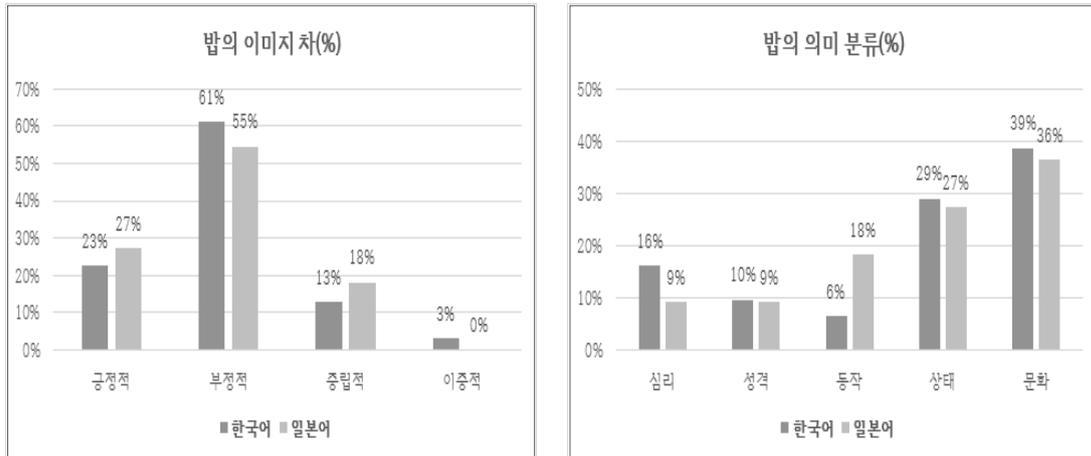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밥, 국, 떡 소재로 사용되어지는 비유표현이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 차와 의미 분류에 대한 분석으로 양국의 식문화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와 그 표현의 유사점을 고찰한다.

4.1 밥의 분류 차이

양국은 ‘밥’을 소재로 하는 비유표현에서 아래의 【표17】처럼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식으로서 양국 모두 밥이 중요하여 이를 인용한 비유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쌀이 부족한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생계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생활환경의 어려움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상징적으로 밥이 비유표현에 많이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17】밥의 이미지 차와 의미 분류



이미지의 차이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이미지의 표현은 한국 23%, 일본 27%로, 양국 모두 건강, 부유, 경력, 보람, 가치 등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 표현은 한국 61%, 일본 55%로, 밥줄, 생계, 찬밥 등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은 주식과 부식의 개념이 뚜렷하여 쌀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가 강한 탓으로 추정된다.

중립적 이미지의 표현은 한국 13%, 일본 18%로, 주로 생계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생활수단으로서의 쌀이 가지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적 이미지의 표현은 한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밥이 주는 이미지가 여러 갈래의 의미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미 분류에서 한국은 문화 및 사회생활 > 상태가치 > 감정심리 > 성격태도 > 동작행위 순으로, 일본은 문화 및 사회생활 > 상태가치 > 동작행위 > 감정심리 = 성격태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은 모두 문화 및 사회생활의 비율이 높는데 한국과 일본은 ‘밥’이 노동, 생활, 직업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이므로 이를 인용한 비유표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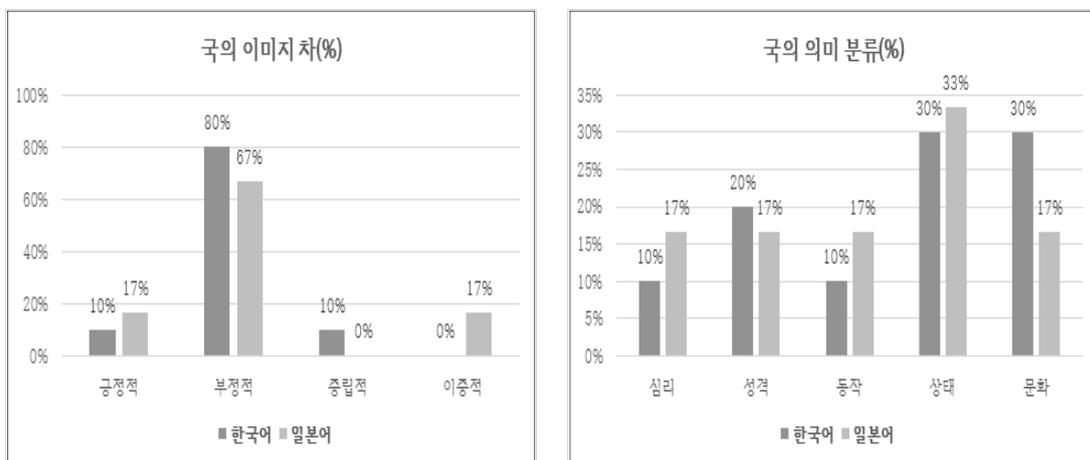
이 논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밥을 나타내는 유사한 비유표현으로는 한국의 ‘금강산도 식후경’이나 일본의 ‘花より団子’등 밥과 연관된 비유표현이 있다. 또한 한국의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밥이 될지 죽이 될지’와 일본의 ‘他人の飯は白い’, ‘海のものとも山のものとも知れない’에서 떡과 飯, 밥과 海のもの, 죽과 山のものが 대응하는 표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유사 비유표현은 소재는 다르지만 밥과 연관 지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일 문화권 속에서 생활환경과 언어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어휘의 선택을 달리하여 사용한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4.2 국의 분류 차이

‘국’의 비유표현에서 부정적 이미지 비율은 【표17】에 나타나듯이 양국 모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실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서 국문화가 발전한 것은 국물로 음식을 불려서 먹었던 생활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 ‘국’을 둘러싼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다르지만 비유표현에서 역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것은 가난해 보이는 체면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8】국의 이미지 차와 의미 분류



긍정적 이미지 비율은 한국10%, 일본17%로 한국에서는 배려의 의미로 쓰이고 있고 일본은 세련됨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 비율은 한국은 80%, 일본은 67%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낙방이나 희생, 일본은 죄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적 이미지는 일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청자와 화자가 듣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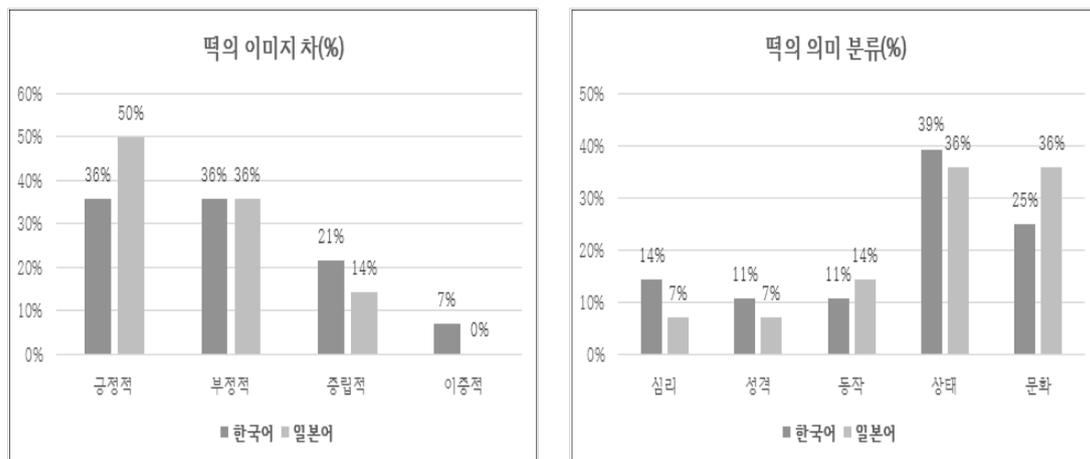
의미 분류에서 한국은 문화 및 사회생활 > 상태가치 > 성격태도 > 감정심리 = 동작행위 순으로, 일본은 상태가치 > 문화 및 사회생활 = 동작행위 = 감정심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8】의 국 이미지 차와 의미 분류 에서 보는 것처럼 국의 의미 분류에서는 양국의 의미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밥의 의미 비율처럼 문화 및 사회생활의 의미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은 상태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국의 국 문화가 다르고 인식이 다름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국 문화는 여럿이 나누어 먹음으로서 공동체를 유지되는 힘이 된다는 이미지가 있으나 일본에서의 국은 공동의 음식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여 국의 비유표현이 의미면에서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3 떡의 분류 차이

‘떡’의 비유표현은 밥이나 국보다 긍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19】에서 보듯이 긍정적 표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양국은 떡에 대한 역사나 문화면에서 신성한 함의 덕(德)의 요소가 내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19】떡의 이미지 차와 의미 분류



긍정적 이미지는 한국이 39%, 일본이 43%로 양국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떡은 행사나 제례에 사용되어지는 신성한 음식으로 종교적인 영향으로 비유표현에서도 부정적 표현을 자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적 이미지는 한국 29%, 일본 36%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함의 의미도 담고 있어 부정적 이미지로 보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

중립적 이미지는 한국 25%, 일본 14%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떡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다른 소재에 비해 중립의 비율이 높다.

의미 분류는 한국이 상태가치 > 문화 및 사회생활 > 감정심리 > 성격태도 = 동작행위 순으로, 일본은 문화 및 사회생활=상태가치 > 동작행위 > 성격태도 =감정심리 순으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어려웠던 시절, 떡을 가지고 나눠먹는 풍습이 있어 나눔으로서 비슷한 맥락의 행운이나 횡재를 가져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떡을 먹으면 힘이 난다’는 지카라모찌(力餅)와 ‘신(神)은 신사의 거울에 머문다’고 하는 카가미모찌(鏡餅) 등의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떡은 종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음식으로서의 떡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일본의 떡에 대한 비유표현은 신성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생활 속의 도구로서도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표현도 다양하다.

Ⅲ. 결 론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역사와 다른 삶의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형성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긴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언어는 그 나라의 공동 인식이 들어있는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외국어 언어습득에 있어 문법이나 어휘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요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양국의 밥, 국, 떡의 소재 3종의 용례 밥 42, 국 16, 떡 42, 총 100 용례의 비유표현 대상으로 하여 그 관용구가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와 의미에 대한 표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연구목적에서는 양국의 언어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상대에게 알기 쉽게,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거나 표현의 변화를 주는 등의 상황에 알맞은 언어 표현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비유표현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국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인 밥과 국 그리고 각종 행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떡에 대한 관용구가 비유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의미는 각각 어떠한 환경에서 사용되어지고 각 소재에 나타나는 문화적 배경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어떠한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지 비교·분석 하였다.

한·일 밥, 국, 떡의 3종을 가지고 의미에 따른 이미지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이 중적으로 분류하였고 상태가치, 사회생활, 감정심리, 성격태도, 동작행위 등 다섯 가지로 의미로 분류하여 비유표현의 의미를 조명하였고 음식문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밥은 양국이 주식으로 쌀을 중심으로 식생활을 한다. 밥상의 구성도 비슷하나 식사 방법이나 식사예절은 각기 독자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비유표현에서 밥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비율이 높다. 이는 밥이 생명 유지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밥이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수단에서 비롯된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다.

밥의 의미 분류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일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 그리고 국민의 개성에 따라 그 언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의 이미지 역시 부정적 비율이 높았다. 비유표현을 통해 고찰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식탁문화의 차를 구분하는 소재가 국이었다. 양국은 모두 국물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국물의 이미지와 의미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음식에는 반드시 국물이 뒤따르는 숟가락 문화라고 한다면 일본은 일즙삼채(一汁三彩)와 같은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부식의 개념으로 보이며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어 국에 대한 중요도가 덜하다.

셋째 떡의 이미지는 밥과 국에 비해 긍정적 이미지의 표현이 많았다. 떡은 어려운 시절에 함께 나누어 먹는 넉넉한 인정의 이미지가 한국에 있고, 일본은 힘이 나는 음식 이미지와 신성한 음식 이미지로 각종 행사와 생활 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음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떡은 양국의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와 제례에 사용했는데 공음공식의례(共飲共食儀禮)과 같은 종교적인 영향에서 비롯되어 부정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한국과 일본의 밥, 국, 떡을 중심으로 비유표현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그 표현의 의미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역사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양국의 밥, 국, 떡 중심의 음식문화는 공통성도 있지만 이질성도 존재한다. 비유표현의 연구를 통해 표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조사범위를 확대 시킨다면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며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사전 및 단행본>

- 김준기 외 1인 『현대국어 관용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3
문금현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1999
최경봉 『우리말 관용어 사전』 (주)일조각 2014
최기호 외 2인 『언어와 사회』 한국문화사 2004

<학위 논문>

- 김계연 「일·한 양국어의 飮·食관련 관용표현 대조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박사학위 논문 2012
김근자 「韓·日 慣用句 比較 研究-韓·日 초등학교 國語 교과서를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日語教育專攻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주연 「韓·日兩國語의 身體語彙關聯慣用句對照研究 - 頭部를 中心으로-」 檀國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學專攻 석사학위 논문 2000
와타나베 요시야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2
이은경 「관용 표현 교육의 연구 -2007 개정교육과정과 7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이은주 「韓·日兩言語의 比喻表現比較研究 -慣用句를 中心으로-」 國立慶尙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석사학위 논문 1997
이점자 「한국인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일본어 표현의 오류」 啓明大學校 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석사학위 논문 2006
조영화 「일본어 관용구에 관한 연구」 啓明大學校大學院 日本學科 석사학위 논문 2006
최선아 「韓·日語의 比喻表現의 比喻研究 -動物 慣用句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2009
후쿠이 유이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에 관한 연구-‘말’과 관계된 한국어 속담 교육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4

平野愛雅 「身体語彙慣用句の日・韓対照研究 -頭部の「目」を中心に-」 韓国外国語大
学校 大学院 日語日文学科 석사학위 논문 2005

<한국 관련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다음 국어사전 (<http://krdic.daum.net>)

2) 일본문헌

<사전 및 단행본>

白石大二 『言語生活 7』 筑摩書房 1975
白石大二 『國語 慣用句 大辞典』 東京堂出版 1988
宮地 裕 『慣用句の意味と用法』 明治書院, 1988
米川明彦·大谷伊都子 『日本語 慣用句 辞典』 東京堂出版 2011

<학위 논문>

李 明玉 「日本語と韓国語の慣用的表現に関する研究-比較言語文化学の立場から-」
学習院大学 人文科学研究科 日本語日本文学専攻 学位論文 2004
朴八龍 「日・韓兩國語の慣用的表現の対照研究 -身體語彙關聯慣用句中心として-」
大阪大学 大学院 文学研究科 博士学位論文 2000

<일본 관련 사이트>

(weblio辞典 <http://www.weblio.jp>)
(Yahoo!知恵袋 <http://chiebukuro.yahoo.co.jp/>)
(<https://www.google.co.kr/>)

부 록

1. 한국어 관용구

1) 밥

- (1) 개밥에 도토리(신세) : 따돌림을 받아서 여럿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 그 나물에 그 밥 :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경우를 두고 이르는 말.
- (3)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 일을 급하게 서두르면 그르칠 수 있다.
- (4) 기름밥을 먹다 : 공원(工員)이 기계를 고치고 만들며 벌어먹는 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5)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하는 말
- (6) 나랏밥을 먹다 :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먹는 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7) 내 밥이다 : 어떤 사람이 내게는 만만하다는 말
- (8) 눈칫밥을 먹다 : 다른 집에 얹혀살다. 기를 펴지 못하고 살다.
- (9) 다된 밥에 재 뿌리다 :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일에 도리어 심술궂게 망쳐버린다는 뜻
- (10) 밥먹을 때는 개도 안건드린다: 밥 먹을 때는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된다는 뜻
- (11)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기쁜 일이 생겨서 마음이 매우 흡족하다는 말.
- (12) 밥값을 하다 : 제 역할을 하다
- (13) 밥그릇(싸움) : 밥벌이를 위한 일자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 (14) 밥 먹듯 하다 : 예사로 자주 하다.
- (15) 밥벌이 하다 : 일정한 노력을 들여서 먹을 것이나 대가를 얻다.
- (16) 밥숟가락을 놓다 : 밥술(을) 놓다.
- (17) 밥술이나 먹다 : 사는 형편이 쓸쓸하여 어지간히 산다
- (18) 밥알이 곤두서다 : 아니꼽거나 비위에 거슬리다.
- (19) 밥을 먹다 : 어떤 분야에 종사하다. 종사한 경험을 속되게 강조
- (20) 밥을 축내다 : 일정한 수나 양에서 모자람이 생기게 하다
- (21) 밥이 될지 죽이 될지 : 일이 제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 (22) 밥이 보약이다 : 건강에는 밥을 잘 먹는 것이 우선.
- (23) 밥줄을 끊다 : 벌어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끊다
- (24) 밥줄이 걸리다 : 먹고 사는 문제. 직업을 얻고 잃는 문제 강조

- (25) 밥줄이 끊기다 : 해고되다
- (26) 연밥을 먹이다 : 살살 구슬러 꼬뜨기다
- (27) 짬밥 : 군대, 직장,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연륜’
- (28) 찬 밥 더운 밥 안 가리다 : 어려운 형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말.
- (29) 찬밥신세 :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0) 콩밥을 먹다 : 감옥살이를 하다.
- (31) 한술밥을 먹다 : 함께 생활하며 지내다 식구, 동료 등

2) 국

- (32) 가시어미 장 떨어지자 사위가 국 싫다한다 : 처갓집에 장이 떨어져서 국을 끓일 수 없게 되었는데 마침 사위가 국은 싫어서 먹지 않겠다고 한다는 뜻
- (33) 고기만진 손 국솥에 씻으랴 : 아무리 인색한들 손에 묻은 고기비린내가 아깝다고 그 손을 국솥에 씻겠느냐는 뜻(인색한사람)
- (34) 국물도 없다 : 돌아오는 몫이나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 (35) 상황의 진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레 짐작으로 믿고 행동하는 뜻
- (36) 꺾저기탕에 개구리 죽는다: 아무 까닭없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7) 끓는 국에 맛 모른다: 영문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함
- (38) 미역국을 먹다: 낙방하다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39) 식은 국도 불고 먹는다: 한번 놀란 후에는 조심을 하게됨을 이르는 말.
- (40) 썩국을 먹다: 어떤 일에 크게 실패하여 골탕을 먹다
- (41) 장 없는 놈이 국 즐긴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사치를 즐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떡

- (42) 굴러들어 온 떡: 횡재를 비유하는 말로 기대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게 된 것
- (43)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다 :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말고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있다가 이익이나 얻도록 하라는 말.
- (44) 그림의 떡 :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 (45) 꿀떡 같다 :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간절하다.
- (46) 남의 떡에 설 친다: 남의 덕택으로 거저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7) 남의 떡이 커 보이다: 물건은 남의 것이 제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 (48) 누워서 떡먹기: 매우 쉬게 할 수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9) 두 손의 떡 : 두 가지 일이 똑같이 있는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를 경우를 이르는 말.
- (50) 떡 먹듯 : 예사로 쉽게.
- (51)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다 ;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말.
- (52) 떡 주고 뺨 맞는다 :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해 주고 도리어 욕을 보거나 화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53) 떡 주무르듯 하다 :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루다.
- (54) 떡 해 먹을 세상 : 떡을 하여 고사를 지내야 할 세상이라는 뜻으로, 뒤숭숭하고 굶은일만 있는 세상이라는 말.
- (55) 떡(이) 되다 : 크게 곤욕을 당하거나 매를 많이 맞다.
- (56) 떡값 : 보너스나 뇌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 (57) 떡고물 : 어떤 일을 부정하게 보아주고 얻는 금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58) 떡을 치다 : 1.양이나 정도가 충분하다. 2.(속되게) 남녀가 성교하다.
- (59) 떡이 생기다 : 뜻밖에 이익이 생기다.
- (60)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다 : 미운 사람에게는 쫓아가 인사한다.
- (61)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겉모양새를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2) 봄 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 봄에는 누구나 군것질을 좋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3) 싼 게 비지떡 : 가격이 싼 것은 싼 बात을 한다는 뜻
- (64) 아이가진 떡 : 상대방이 힘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5) 웬 떡이야 : 뜻밖의 행운이나 횡재를 만났을 때 이르는 말.
- (66) 입에 맞는 떡 : 마음에 꼭 드는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
- (67) 제 떡 먹기라 : 재를 한 줄 알고 신이 나서 먹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먹을 떡을 먹은 데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
- (68)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다 : 제가 받을 수 있는 복도 멍청하게 놓친다는 말.
- (69) 찰떡궁합 : 아주 잘 맞는 궁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일본어 관용구

1) 飯

- (70) 朝飯前 : きわめて簡単なこと。非常に容易
- (71) いつも月夜に米の飯(いつもつきよにこめのめし) : 苦勞のない気楽な生活のこと。
- (72) 同じ釜(かめ)の飯を食う : いっしょに生活する。起居を共にし, 親しく暮らす。
- (73) 他人(たにん)の飯を食う : 親元を離れ、他人の家に奉公するなどして、実社会の経験を積む。
- (74) 熊野(ゆや)松風(まつかぜ)は米の飯 : 謡曲の「熊野」と「松風」は米の飯のようにだれにも好まれる名曲であるということ。
- (75) 冷や飯を食う : ①冷遇される。 ②他人の家にいそろうする。
- (76) 無駄飯を食う : 何の役にも立たず、無益に日を過ごす。
- (77) 飯の食上げ : 収入がなくなって飯が食えなくなること、生活できなくなること。
- (78) 飯の種 : 生活の手段。収入を得る方法。
- (79) 飯を食ってすぐに寝ると牛になる : 食事をした後に、すぐ、横になったり、眠ったりするのは、行儀が悪いので、そのことをいましめた言葉。
- (80) 飯を食う : 生活をする。生計をたてる。

2) 汁

- (81) 灰汁(あく)が抜ける : 嫌みがなくなってすっきりとしたようす。あくどさや強いクセがなくなって、人間として洗練されること。
- (82) 甘い汁を吸う : 他人を利用して、自分は苦勞せずに利益を得る。
- (83) てまえみそ : 自分の家で作った味噌の味を自慢することから自分のことをほめること。自慢
- (84) 汁を吸っても同罪 : 悪事に少しでも関わったら同罪だということ。汁を少し吸っても、中身を食べたのと同じ
- (85) 馬鹿の三杯汁 : 何倍も汁のお代わりをすることをあざけていうことば。汁のおかわりは二杯までが常識で、三杯もお代わりをするのは愚か者だという意
- (86) 味噌も糞(くそ)も一緒 : 善悪・優劣などの区別をせず, 何もかも ごたまぜに同一視する。

3) 餅

- (87) あんころ餅で尻(しり)叩(たた)かれる : 思いかげず、うまい話や幸運が舞い込んでくること
- (88) 絵に描いた餅 : 役に立たないもの、絵空事などをたとえて言う表現。

- (89) 縁(えん)の下の力餅：人に知られないで，陰で努力・苦心する人。
- (90) 魚は殿様に焼かせよ、餅は乞食に焼かせよ(さかなはとのさまにやかせよ、もち
はこじきにやかせよ)：魚や餅の上手な焼き方を言ったもの。また、仕事をさ
せるときには適任者を選べということ。
- (91) 画餅に帰す(がべいにきす):計画などが失敗に終わり，無駄骨折りになる。
(画餅란 絵にかいたもち。実際の役にたたないものたとえ)
- (92) 木に餅(もち)がなる：話がうますぎることのたとえ。非常に難しいことを、こ
ともなげに言うことの喩え。
- (93) 棚から牡丹餅(ぼたもち)：思いがけない幸運が舞い込むこと
- (94) 夏の牡丹餅(ぼたもち)犬も食わぬ：夏の牡丹餅はまずいので、犬もくわないほ
どだということ
- (95) 餅代：越年のための少額の一時金，という意味で使うことが多い
- (96) 餅肌：つきたての餅のように，色が白くなめらかでふっくらとした肌
- (97) 餅は餅屋：何事においても，それぞれの専門家にまかせるのが一番良いということ。ま
た、上手とは言え素人では専門家にかなわないということのたとえ。
- (98) 餅を搗く：男女が性交をする。
- (99) もちを食い酒を飲む：もちはいくらうまくても、世間づきあいにはもちではできない。
- (100) 焼きもちをやく：嫉妬(しっと)する、嫉妬を意味する。